

2026 Vol.27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NEWSLETTER

대학혁신지원사업 뉴스레터



C O N T E N T S

대학혁신지원사업 뉴스레터

2026 Vol.27

발행일 | 2026. 2. 25
발행인 | 이주열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
발행처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50834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PRIME의생명공학관 106호
TEL. 055) 320-3215 FAX. 055) 320-3207
E-mail. uispc0624@gmail.com
www.uispc.org

인쇄 | 대양프린팅

기고문

- 04** 지방대 특성화사업, 중간 거버넌스로서의 방향과 역할
목원대학교 대학혁신본부 부분부장 / 대학혁신지원사업추진단장_ 강현영

성과사례

- 06** 열혈사제2
강남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팀원_ 노아름
- 10** 전공과 함께 성장하는 나 “전공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경일대학교 학생성장센터 담당_ 이연우
- 14** 「전공 선택이 성장이 되다」 - 고신대학교 전공설계지원센터 운영 사례 -
고신대학교 전공설계지원센터 담당_ 금예빈
- 20**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내·외부고객만족도 진단 및 우수사례 발굴
단국대학교 CS경영센터 CS경영팀 팀장_ 주춘자
- 22** [대학혁신] 2025학년도 English Presentation Contest
대구대학교 교양교육센터 행정실 담당_ 류규리
- 26** 권역 간 공유·협력으로 선도하는 AI 기반 대학 혁신의 미래
동의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직원_ 김선홍
- 28** 신입생 통합선발 경쟁력 강화 및 전공자율선택 활성화를 위한 전공자율선택제 통합 정보 홈페이지 구축
명지대학교 대학혁신추진단 팀원_ 조아연
- 32** “자율로 전공 선택하자!” 탐색에서 결정까지, 학생 성장을 설계하는 자율전공학부
부산가톨릭대학교원 자율전공학부 학부장_ 이영우
- 36** 사회혁신, 배움에서 실천으로: 소셜임팩트스쿨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사례
서울여자대학교 교양대학 / SI교육센터 조교수_ 윤수진
- 40** 나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한 시간, EDISON 전공설계지원센터 SPARK UP 워크숍
수원대학교 EDISON전공설계지원센터 연구원_ 박재원
- 44** 불안한 선택에서, 설계하는 전공으로! 데이터 기반 전공설계 지원 상담 시스템의 성공적 안착
수원대학교 EDISON전공설계지원센터 선임연구원_ 임경희
- 48**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혁신 성과의 장, '2025 SMU EDU EXPO' 개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혁신단 직원_ 김호경
- 52** 중도탈락 잠재군 진로상담 체계 확립(신라꽃피움)
신라대학교 교육혁신원 연구원_ 이진경
- 56** 미래캠퍼스 혁신을 위한 행정조직 전면개편 시행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미래기획처 혁신전략기획팀 차장_ 김소영



- 58** 대학-지역사회 상생을 여는 미래캠퍼스 연세콘서트 시리즈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미래기획처 대외협력팀 직원_ 이수현
- 62** 2025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영역별 포럼 개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미래대학혁신지원사업단 직원_ 권의정
- 64** 밀착형 맞춤형 교양교육으로 여는 학생성장의 길
인천가톨릭대학교 ELPIS교양대학장_ 신은주
- 68** 교양교육의 학습 성과를 실천으로 확장하다-함께형 교양樂 프로그램을 통한 광주·전남권 연합 토론회 운영 사례
조선대학교 창의교육팀 팀원_ 김가원
- 72** 에듀테크시대 혁신 교수법의 적용과 확산: 생성형 AI 활용 교수법 워크숍 운영 사례
차의과학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사원 / 교수파트담당_ 문희라
- 76** 시 기초부터 융합까지: 포항공과대학교 학부시 교육 혁신 사례
포항공과대학교 학사팀 대리_ 강미진
- 80** AI-First를 넘어 AI-Value Up으로: 한성대학교 교수학습 생태계 구축
한성대학교 교수학습센터 교육연구교수_ 박현경
- 82** 적응형 학습에서 AI 결합 수업까지: 한림대 AI 수업모델의 진화
한림대학교 교육혁신센터 직원_ 김정훈

학생사례

- 86** 맛있는 책방
강남대학교 유니버설아트디자인학과 학생_ 박연주
- 90** 2025학년도 학부생 연구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학생 인터뷰 공유
국민대학교 창의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전자화학재료전공 학생_ 양서정
- 94** 머물지 못했던 학생에게, 학교 안의 길을 밝혀주다 LAMPON 프로그램, 학교 속에서 다시 자리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상담심리학과 학생_ 조민영
- 98** 대전 물특화 로컬 브랜딩 방안 아이디어 '마셔유(My Share U)'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무역물류학과 학생_ 배운미
- 102**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뇌를 깨우는 1:1 AI 스터디: [AI 학생을 활용한 메타인지 학습법]
충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학생_ 이일규

행사소식

- 106** 서울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 페어' 성료
-“Make Your Own S.T.A.R!” 학생·교수·직원이 함께 만드는 초연결 교육혁신 축제 -
서울여자대학교 교육혁신단 교육혁신팀 직원_ 이지연



지방대 특성화 사업, 중간 거버넌스로서의 방향과 역할

강 현 영 | 목원대학교 대학혁신본부 부분부장 / 대학혁신지원사업추진단장

지금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으로 내부 역량을 키워 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등록금 동결로 어려움을 겪었던 대학을 위한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국가 재정의 효율적 투자이자,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단순한 연속 사업이 아니다. 학령인구 급감, 지역 소멸 위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대학 정책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에 가깝다. 특히 이번 3주기에서 지방대학의 특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 자율성 확대와 학생 중심 교육 혁신이라는 분명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교육과정과 학사제도 혁신을 통한 학생선택권을 강화하고 대학 스스로 수립한 자율혁신계획에 따라 재정 집행을 함으로써 대학의 교육혁신을 가속화하고 대학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지역 사업과의 연계한 맞춤형 인재양성과 대학 간 자원 공유 및 성과 확산 등을 강조함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RISE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하는 편람에 따른 평가를 함으로써 동시에 모든 대학이 비슷한 혁신을 추구

하는 구조라는 한계도 드러났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동일한 지표와 방식으로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지방대학의 현실과 강점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도약이 필요하다.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의 축소판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존재하는 고등교육의 또 다른 모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대 특성화 사업은 단순한 재정 보완책이 아니라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지방대학의 위기 시대, '글로벌 대학 30'과 '지방대 특성화 사업'은 지방대학들이 붙잡아야 할 두 개의 생존 전략이지만 두 사업은 지향점과 투입되는 에너지의 결이 다르다. 지방대 특성화 사업은 일종의 '전술적 보완'으로서 지방 대학이 가진 기존의 강점을 더 날카롭게 가다듬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이라는 기존 체제 안에서 더 나은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반면 글로벌 대학 30은 전략적 대전환이다. 대학 간의 통합, 구조조정 등 파격적 혁신의 요구가 필수적으로, 대학의 정체성 자체를 특정 전략 분야에 재편하여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교육 기관으로 재탄생하라는 일종의 대학 리블랜딩이라 할 수 있다. 지방대 특성화 사업은 대학 본연의 교육 기능을 유지하면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 체력 관리를 통해 점진적 경쟁력 강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글로벌 사업은 지역의 고등교육 체계의 재편을 목표하는 보다 급진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학이 어떤 존재 이유를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는 과정일 것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 RISE, 글로벌 사업으로 재편된 고등교육 재정 지원 체계에서 지방대 특성화 사업은 수직적인 측면에서 위계상 중간 수준의 전략적 거버넌스 장치로 위치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이 대학 운영 전반을 포괄하는 기초·자율 사업이라면, 지방대 특성화 사업은 지역 여건과 대학의 비교우위를 반영해 지방 사립대의 기능을 선택적으로 강화하는 전략 사업으로 기능한다. RISE와 글로벌 사업은 국가 및 광역 차원의 지역혁신 전략을 직접 반영하는 상위 메타 거버넌스로 작동한다. 이에 따라 지방대 특성화 사업은 상위의 지역·국가 전략을 대학내부 체계로 번역·조정·연결하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하위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재정·제도적 기반으로 활용하는 수직적 연계 구조를 형성한다.

한편, 수평적으로는 다수의 지방대 특성화 사업이 병렬적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RISE·글로벌 전략과의 정합성, 지자체 및 산업체 연계 수준에 따라 비공식적 위계가 발생하며, 이는 자원 배분과 의사결정 권한의 차별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대 특성화 사업은 위계적 통제와 다중 행위자 간 네트워크 협력이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중간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6학년도 지방대 특성화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거버넌스 실현을 지역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다층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지방대 특성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대학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강점을 발굴하고 이를 교육, 연구, 산학기관 협력에 반영하는 특성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전공 중심의 특성화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2주 기까지의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성과를 가속화 하여야 한다.

둘째, 이미 RISE에서는 지자체가 정책의 주체가 되어 대학과 지역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서 국가적 거버넌스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연계성이 아니라 타 권역으로의 지방 사립대의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서는 그 지방 사립대가 잘하는 것을 타권역과 공유·협력하게 함으로써 지방 사립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그러한 지방 사립대의 역할이 모여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수도권 사립대학은 지방 사립대에 비해 풍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대 특성화의 역할 중 필요한 부분들은 수도권 사립대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등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지방대 특성화 사업은 공유형과 단독형으로 나누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유형의 경우, 2-3개 대학으로 제한하고 주관은 지방 사립대가 되어야만 한다.

지방대학 특성화가 곧 학생 선택권 확대와 직결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지역에 기반한 특성화 교육은 학생들에게 명확한 진로 경로와 학습 동기를 제공하며, 이는 곧 대학 교육의 실질적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어디서나 비슷한 대학’이 아니라 ‘이 대학이어서 가능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지방대학 특성화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성공적인 지방대 특성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화 노력이 단기 성과로 끝나지 않도록 단년도 성과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중장기 관점의 성과 관리, 기여도와 지속 가능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지방대 특성화 사업은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을 넘어, 지역 - 대학 - 국가 간 거버넌스를 조정하는 공공적 장치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지방대학이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이며, 지역의 위기는 곧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이어진다.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을 근간으로 하여 그 성과를 가속화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대학 혁신을 지향한다면, 지방대 특성화를 주변 과제가 아닌 중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는 ‘모두를 같은 방향으로 혁신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열혈사제 2



노아름

강남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팀원

강남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대학교육혁신단 산하 기관으로, 교수역량 강화와 강의 질 관리를 담당하는 교수지원부와 학생의 학습역량 강화를 담당하는 학습지원부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기반 교수법 연구·개발, 강의 컨설팅, 학습전략 진단 및 맞춤 코칭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 분석과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혁신을 실현하는 대학의 교육 지원 조직입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의 학습경험 및 문제해결 중심의 수업 확대를 위한 <열혈사제2>는 교수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소규모 팀을 구성해 전공, 수업, 대학생활, 실무 등 다양한 주제로 4주 이상 활동을 수행하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지도비를 지원받는 교수자-학습자 상호작용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열혈사제2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에 대해 교수자와 학습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소통과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정의적이고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프로그램

학업/전공/목적별
기초/심화/보충 학습

학생 수준별
맞춤 학습

대학적응 및
학업 성취도 제고

수업 피드백

<활동 주제>



시 생성이미지

운영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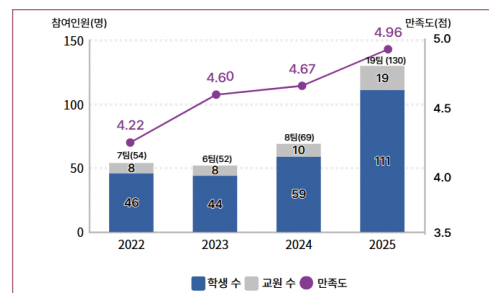
2025년 프로그램 고도화 현황

2024 교수지원프로그램 수요조사 결과와 프로그램 참여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5 <열혈사제2>는 아래와 같이 고도화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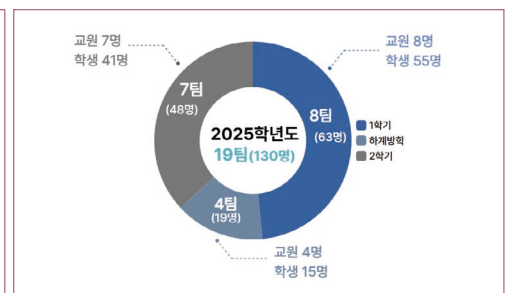
- 대상 교원 확대: 수업 운영 과정에서 교수자가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 대상 교원을 전임교원에서 비전임교원 및 강사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운영 단위 세분화: 방학기간 운영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 기존 1년 단위 운영에서 1학기~하계방학-2학기로 구간을 분류하고 연속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운영 방식 개선: 기존 선착순 신청 방식에서 다양한 주제의 학습 활동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과 프로그램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심사 기반 선정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열혈사제2> 운영 현황

2022~2024년에는 매년 6~8팀이 참여했으나, 2025학년도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해 총 19팀, 130명(교원 19명, 학생 111명)으로 참여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원사항 확대, 활동 성과물 질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OT 강화 등을 통해 참여자 만족도 또한 4.22에서 4.96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22~2025 열혈사제2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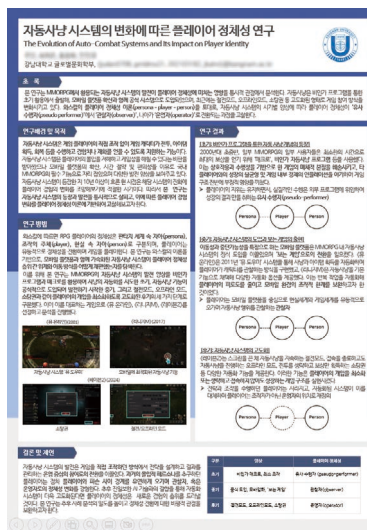
2025학년도 구간별 참여 인원

III. <열혈사제2> 활동 및 성과

<열혈사제2> 참여팀들은 프로그램 취지와 팀 목표에 맞게 다양한 활동으로 탐구기반 문제해결, 전공 실무 경험, 자격증 취득, 연구성과 창출 등의 성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열혈사제2> 활동 사진



창의성, 전공역량 강화로 증명되는 <열혈사제2>

운영성과

논문 발표 및 대회 수상

학문적 탐구 역량 강화

2025 한국게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 제출 및 발표
→ [2025-1] 열혈XP (문화콘텐츠학과 안*경 교수 팀)

2024 한국창의력교육학회 제7회 **대학생 창의력 경진대회** 우수상
2023 한국창의력교육학회 제6회 **대학생 창의력 경진대회** 대상
→ [2024, 2023] 평생평교, L2K (교육학과 김*연 교수 팀)

현장 및 실무역량 강화

실무·실습 기반 학습

원드서핑 지도자 대비 수상 훈련
→ [2025 하계] HI WIND (체육학과 정*홍 교수 팀)

체육학과 수업·전공 중심의 **영상 콘텐츠** 제작
→ [2025 하계] 드림스포츠 (체육학과 황*선 교수 팀)

지역사회 특수교육대상 학생 대상 사회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 [2024] 두빛나래 (초등특수교육과 최*숙 교수 팀)

생활체육지도자 2급 **웨이트 트레이닝** 실기교사 합격
WNGP 대회 **클래식 피지크** 비기너 3위
→ [2025 하계] 드림스포츠 (체육학과 황*선 교수 팀)

2025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 [2025 하계] 복지파워UP (사회복지학부 강*수 교수 팀)

자격증 대비

목표 지향 학습 효과

REHA HOMECARE 재활복지 전시회
노인생애체험센터 탐방

→ [2025] 초고령사회의전문가는 우리가! (실버산입학과 홍*연 교수 팀)

'**시니어희망연구소**' 탐방
→ [2024] 사회복지 노인분야 학습유량단 '뽕' (사회복지학부 천*희 교수 팀)

직무 이해도 제고

전공현장 탐방 및 실무 체험

〈열혈사제2〉는 전공 기초학습이나 심화학습, 수업 피드백, 대학 적응, 진로 탐색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학습자와 교수자가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 학업 성취도, 전공 실무 이해도, 대학 소속감을 높이고 교수자는 더 나은 교육 방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식 전달을 넘어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고 피드백하며 성장하는 〈열혈사제2〉를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팀이 소통 기반 학습의 힘을 성과로 증명할 것입니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전공과 함께 성장하는 나 “전공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이연우

경일대학교
학생성장센터
담당

▮ 운영목적

경일대학교 학생성장센터는 학생들의 학습역량과 전공역량을 강화하는 전공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부족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형태를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학습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운영방식

전공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생성장센터의 자체 기준을 바탕으로 학기 초 학부(과)에서 제출한 계획 중 1개의 프로그램이 승인되며, 해당 프로그램의 세부 계획서 심사를 통해 최종 승인이 확정된다.

승인된 프로그램은 한 학기 동안 학부(과)별 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며, 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 운영내용 및 결과

2025학년도에는 1학기 4개, 2학기 5개로 총 9개의 전공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전체 참여 인원 305명 중 296명의 학생이 수료하여 높은 참여 및 이수율을 보였으며, 평균 만족도가 4.69점으로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학기					2학기				
순	프로그램명	학부(과)	수료인원	만족도	순	프로그램명	학부(과)	수료인원	만족도
1	간호 실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간호학과	163	4.85	1	공연예술전문가 과정 K-Crew	부티학과	13	4.7
2	LIVE_2D를 통한 버튜버제작	만화애니메이션 학부	18	4.88	2	스포츠인 경력관리 프로그램	스포츠 융합학부	10	5.0
3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	건축디자인과 (5년제)	22	4.45	3	스포츠종목별 손상의 이해	스포츠재활 의학과	26	4.9
4	숏폼 콘텐츠 경상북도 국제시 메타버스 영화제 출품작 공모전 참가 프로젝트	미디어크리 에이터학과	15	4.7	4	태권도 산업 맞춤형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2	태권도학부	17	4.67
					5	피트니스산업 역량 기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피트니스 산업학부	12	4.1
합계								296	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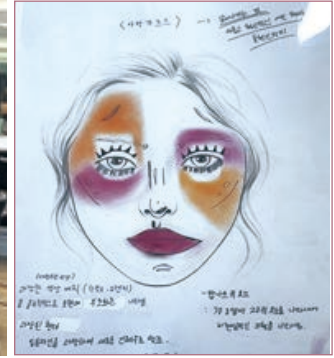
▶ 프로그램 사진



간호학과



미디어크리에이터학과



뷰티학과



스포츠융합학부

III. 학생들의 참여후기

생각보다 섬세한 조정이 많이 필요했고 원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하는 데에도 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활동하는 유명 버튜버들의 모델링과 모션 작업은 정말 정교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결과물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그들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직접 체험해 보니 그 기술력과 완성도가 더욱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설정값을 하나하나 조절하면서 캐릭터의 표정과 움직임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 점점 익숙해졌고, 그림이 점점 자연스럽게 생동감 있게 변하는 모습을 보며 성취감을 느껴서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 만화애니메이션학부 안○○ -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AI 툴을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특히 ChatGPT를 통해 기획과 아이디어 정리는 쉽게 할 수 있었고, 다양한 툴을 조합하여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경험이 유익했다.

각 툴의 특징과 역할에 맞게 실무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가능성도 느꼈다.

- 미디어크리에이티브학과 김○○ -

이번 '제10회 보행자의 날' 행사에 참여하면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여 인바디 측정 결과를 설명해 주는 경험을 통해 전공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깨달았다.

특히 연령대와 체형이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면서 측정 결과를 설명해 주는 개인 맞춤형 접근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실감했다.

- 스포츠융합학부 심○○ -

현장에 나가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여러 컨셉으로 해 볼 수 있었으며, 뮤지컬과 공연 등 여러 작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볼 수 없던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창의성을 키울 수 있었고, 여러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평소에는 못 해 보던 경험을 해 볼 수 있어서 색다르고 재밌었으며 뮤지컬이나 연극뿐만 아니라 샵이나 특수분장과 같은 현장도 나가보고 싶습니다.

- 뷰티학과 황○○ -

III. 향후계획

학생성장센터에서는 향후에도 전공 연계 비교프로그램 운영 통해 정규 교육과정에서 부족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형태를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 실무를 경험하고 전공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전공 선택이 성장이 되다」 - 고신대학교 전공설계지원센터 운영 사례 -



김예빈

고신대학교
 전공설계지원센터
 담당

■ 추진 배경 및 목적: '전공 선택'에서 '전공 설계'로의 전환

고신대학교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소명과 성장을 교육의 중심 가치로 삼아온 대학이다. 소규모 학과 운영을 통한 교수 - 학생 간의 높은 접근성, 학사지도전담교수(AA교원) 제도의 안정적 운영, 전공자율 선택제의 단계적 확대는 학생 맞춤형 전공 설계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고신대학교의 구조적 강점이다.

이에 고신대학교 전공설계지원센터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단편적인 전공 안내를 넘어 학생의 전공·진로 성장을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학생 중심 전공설계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본 사업은 전공 탐색에서 설계, 체험, 성찰, 성과 환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성장 로드맵으로 설계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단계	핵심 프로그램
기반 구축	AA교원 회의, 부서 별 전문인력 협력 회의, 교직원 설명회
탐색	2025 KOSIN 전공박람회: 전공 안에서만 갇히지 말고 밖으로 넓혀보자
설계	함께 찾는 나의 길: 전공 길라잡이 과정
체험	3-Bridge: 전공·진로 설계 워크숍
연계	학생중심 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성찰·환류	학생중심 전공 진로 탐색 결과공유 간담회, 전공자율선택제 성장로드맵 「멘토링 장학금」 포트폴리오 공모전

■ 추진 전략 및 운영 체계: 전공설계지원센터 중심의 통합 지원 모델 구축

전공설계지원센터는 2025학년도 한 해 동안 전공자율선택제 학생을 중심으로, 전공 설계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 전략을 추진하였다. 먼저, AA교원, 전문인력, 행정부서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AA교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학생 맞춤형 전공 설계 지도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의 전공 설계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전공박람회, 전공 길라잡이 과정, 3-Bridge: 전공·진로 설계 워크숍, 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전공·진로 탐색 결과 공유 간담회를 학생 성장 단계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운영함으로써, 전공 탐색부터 성찰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지원 구조를 구현하였다.

또한 학생의 전공 설계 경험을 성장 포트폴리오로 기록하고 축적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신의 성장 과정을 성찰하고 차년도 전공 설계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였다.

▮ 주요 추진 내용: 탐색 - 설계 - 체험 - 성찰 - 환류의 단계별 운영

1) 전공 탐색의 확장: 「2025 KOSIN 전공박람회」: 전공안에서만 갇히지 말고 밖으로 넓혀보자



2025년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2025 KOSIN 전공박람회」는 전공설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AA 교원과 유관 부서가 함께 참여한 대표 프로그램이다. 각 학과는 전공 체험 부스를 통해 전공 특성과 진로를 소개하고, AA교원은 1:1 상담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전공 설계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공을 정보가 아닌 '경험'으로 인식하며, 스스로 전공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는 신뢰를 형성하였다.

2) 자기이해 기반 설계: 「함께 찾는 나의 길: 전공 길라잡이 과정」

함께 찾는 나의 길: 전공 길라잡이 과정은 심리·진로 특강과 활동 중심 접근을 통해 학생들이 전공 선택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과 고민을 정리하고,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전공 설계 방향을 설정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공 선택을 부담이 아닌 성장의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3) 밀착형 체험 설계: 「3-Bridge: 전공·진로 설계 워크숍」

3-Bridge: 전공·진로 설계 워크숍은 학과 교수와의 직접적인 만남과 체험 활동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설계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특히 체험 중심 구성은 전공 선택과 동반되는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4) 학생중심 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학생 수요에 기반한 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실제 학과 생활과 진로 설계 경험을 공유하는 장으로 운영되었다. 학생들은 전공 결정 이후의 학업과 진로를 현실적으로 조망하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수 있었다.





5) 성찰과 환류: 전공·진로 탐색 결과 공유 간담회

전공·진로 탐색 결과 공유 간담회에서는 한 해 동안의 전공 탐색 경험을 되돌아보고,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성찰과 개선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는 학생 개인의 경험을 넘어, 차년도 전공 설계 지원 프로그램으로 환류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운영 성과: 학생 성장 중심 전공설계 지원체계의 실질적 성과

고신대학교 전공설계지원센터는 2025학년도 동안 전공 설계 전 주기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여 학생 성장 중심 전공설계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첫째, 전공자율선택 학생의 전공 설계 경험의 질이 향상되었다.

전공박람회 이후에도 심화·확장 프로그램을 연속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은 전공을 반복적으로 탐색하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 관점에서 전공을 재해석할 수 있었다. 특히 심리 기반 접근과 체험 중심 프로그램은 전공 선택에 따른 불안을 완화하고, 학생이 전공 설계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였다.

둘째, 대학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전공설계 지원 구조가 정착되었다.

AA교원, 학과 교수, 전문인력, 재학생 멘토가 협력하는 구조 속에서 전공 설계 지원은 특정 부서를 넘어 대학 전체가 함께하는 체계로 확장되었으며, 교수 - 학생 간 신뢰 형성과 학생 간 경험 공유를 촉진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셋째, 전공 설계 경험이 기록되고 축적되는 성장 성과로 전환되었다.

학생들은 한 해 동안의 전공 탐색과 설계 경험을 성장로드맵 포트폴리오로 정리하며 자신의 성장을 구조화 하였고, 이는 차년도 전공 설계와 학업 계획으로 확장되는 환류 체계로 기능하였다.

▶ [그림] 전공 탐색에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고신대학교 전공설계 여정



전공자유선택제 참여 학생 소감

[탐색 단계]

"처음에는 전공을 빨리 정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함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전공박람회에서 여러 분야를 직접 경험해 보니, 전공 선택에 앞서 충분히 고민하고
탐색하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급해하기보다 여유를 가지고 저에게 맞는 길을 찾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설계·체험 단계]

"함께 걷는 나의 길: 전공 길라잡이와 3-Bridge 전공 진로 설계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전공·진로에 대한 막연하기만 했던 고민들과 어려움이 해소되고
전공 진로에 대한 목표와 계획들이 구체화되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공 선택이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성찰·환류 단계]

"여러 프로그램을 거치며 막막했던 고민들이 저만의 서사로 정리되었고,
이제는 '왜 이 전공을 선택했는지'를 논리적이고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맞는 전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얻은 값진 경험들은 단순히 진로를 정한 것을 넘어,
저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킨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 지속가능한 학생 중심 전공설계 모델로의 확장

고신대학교 전공설계지원센터는 2025학년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전공설계 지원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공박람회의 정례화와 참여 학과 확대, 전공 설계 단계별 프로그램의 세분화, 성장로드맵 포트폴리오의 상시 운영을 통해 학생 전공 설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신대학교는 학생의 전공 선택을 한번의 결정이 아닌 성장의 과정으로 함께하며, 학생 한 사람의 삶과 미래에 끝까지 동행하는 대학으로서의 책임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내·외부고객만족도 진단 및 우수사례 발굴



주최자

단국대학교
CS경영센터 CS경영팀
팀장

추진 배경

단국대학교는 [지속가능한 학생성장시스템 재설계]란 전략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의 질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고자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를 추진해 왔다. 대학 교육의 주요 수요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수, 직원, 외부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요구를 정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운영 전반의 개선과 성과 환류 체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만족도 진단은 단순한 설문조사에 그치지 않고,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여 교육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품질을 제고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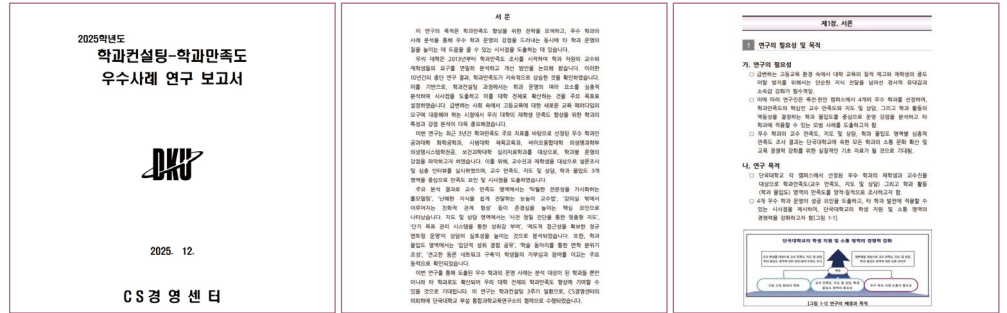
추진 내용

2013학년도부터 재학생, 교수,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고객 만족도 진단을 시행해 왔으며, 2016학년도부터는 기업체, 고교 진학교사, 학부모, 졸업생, 지역주민을 포함한 외부고객 만족도 진단을 시행하여 우리 대학 전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전체 재학생의 92.2%가 참여한 2024학년도 학과(부)만족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만족도 개선 우수학과 4개를 선정하고, 각 학과의 운영 특성, 교육적 강점, 학생 만족도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우수 사례 연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해당 보고서를 전체 학과에 배포하여 학과별 교육 개선 전략 수립과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었다.

▶ [2025학년도 학과만족도 우수사례 연구 결과보고서]



추진 성과

학과만족도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한 우수사례 분석과 공유를 통해 학과 운영의 우수한 요소가 대학 전반으로 확산되었으며, 전공 교육과정 및 학생 지원 영역에서 실질적인 만족도 상승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성과분석을 통해 교육 개선의 방향성을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자발적인 교육혁신 참여로 이어졌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단국대학교는 2025년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 사립대학 부문 2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에도 만족도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한 교육 개선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성과 확산 및 향후 계획

학과만족도 우수학과를 대상으로 총장 시상식을 개최하여 구성원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하였으며, 교내 홍보 방송 Signage를 활용하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대학 구성원 전반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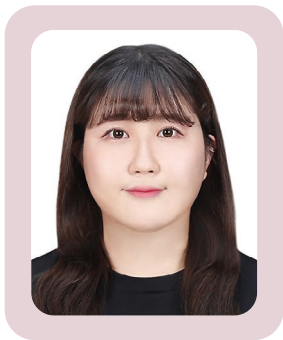
향후에는 수집된 객관적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결과 기반의 우수사례 연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개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및 환류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대학혁신] 2025학년도 English Presentation Contest



류규리

대구대학교
 교양교육센터 행정실
 담당

배경 및 목적

2025-2학기 대학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English Presentation Contest는 재학생들에게 재미 있고 즐거운 영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영어 발표에 대한 동기를 부여 하고자 운영되었다. 본 대회는 영어 발표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영어 준비 및 면접 대응 능력 향상을 도모 하고, 다양한 주제를 통해 국내외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영어 발표 능력 향상을 통한 고급 의사소통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취업을 향상과 대학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 세부 사항

- 1) 일시/장소 : 2025.11.21.(금) 14:00~17:00 / 디자인예술 5관 1층 DU글로벌라운지
- 2) 참석 인원 : 총 18명

구분	학생	교직원	계	비고
지원자	16명	-	16명	-
본선지도	13명	5명	18명	총 13명 참여
본선발표	13명	5명	18명	교직원: 심사위원 3명, 담당직원 2명

3) 세부 일정

순서	주요내용	주요 진행 및 발표자
14:00 ~ 14:10	인사	패트릭 **블스
14:10 ~ 16:30	참가자별 발표 및 심사	참가자 (마*림, 김*혁, 조*진, 김*진, 이*빈, 다*티 응*하, 산** 모*위**, 김*현, 자** 아**, 박*겸, 박*현, 살** 알*, 피** 다* 산*) 진행: 패트릭 **블스 심사위원 (패트릭 **블스, 브** 프린, 마틴 리**이)
16:30 ~ 17:00	시상 및 평가	패트릭 **블스

3) 발표 주제 목록

Topics Fall 2025:

1. The Science of Superstitions: Why Do We Knock on Wood?
Explore the psychology and history behind common superstitions, and why humans are wired to believe in luck.
2. Fandom Culture Wars: When Being a Fan Gets Competitive
Look at intense fan behaviors in K-Pop, esports, or anime, and how online communities shape identity and rivalry.
3. The Secret Life of Algorithms: How Social Media Shapes Your Mind
Dive into how recommendation systems, AI feeds, and targeted ads subtly influence behavior, mood, and opinions.
4. The Hidden Life of Everyday Objects: Stories You Never Knew About Common Things
Explore the history, invention, and surprising trivia behind items we use daily, from chopsticks to smartphones.
5. Food of the Future: Lab-Grown Meat, Insects, and Edible Innovations
Examine alternative protein sources, sustainability, and cultural acceptance of new foods.
6. From Memes to Movements: How Humor Can Change Society
Discuss how memes, viral videos, and internet humor impact social awareness, politics, and youth culture.

▮ 심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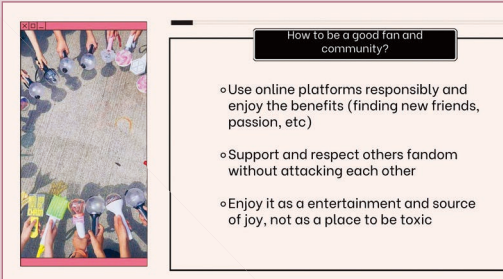
본 English Presentation Contest는 재학생들에게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발표 동기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취업 영어 및 면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다양한 주제를 통한 영어 발표 경험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심사 결과, 대상은 신○○·유○○ 학생(2명)이 수상하였으며, 뛰어난 영어 표현력과 논리적인 발표 구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상은 송○○ 학생 외 1명(2명), 은상은 김○○ 학생 외 2명(3명), 동상은 노○○ 학생 외 3명(4명)이 각각 수상하였고, 참가상은 박○○ 학생 외 2명(3명)에게 수여되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영어 발표 실습을 통해 자신감과 실전 역량을 향상시켰으며, 향후 취업 경쟁력 강화와 대학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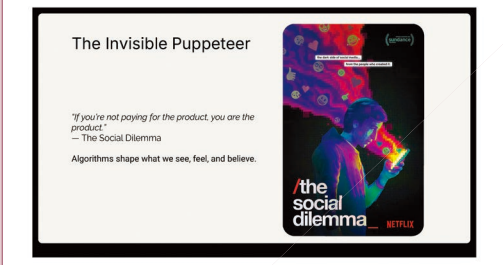
수상 자료



대상 수상자 PPT 자료 일부



대상 수상자 대본 일부



금상 수상자 PPT 자료 일부

Slide 1 - title

Hello everyone. My name is Santosa Maureen Wilaya, but you can just call me Momo. In this game opportunity I would like to presentate about the theme 'Random Culture Wars' (When being a Fan gets Competitive).

When we think about fans, we imagine about the excitement, support, and love, but sometimes, that love would turn up as a rivalry where people compete not for the fan but to show dominance. Before talking about fandom wars, we must know the definition of fandom.

Slide 3 - Fandom

To say it simply, fandom is a community built around shared enjoyment for something, it could be KPOP, anime, sport, books, movies, just anything. These gathered fans would share their passion, ideas, and express themselves with each other. But sometimes, this passion could become too intense and result in fandom wars.

Slide 4 - Fandom wars

Fandom wars are conflicts between different fan groups, often occurring online, that arises because of their strong loyalty towards their favorites and to prove that they are the best. These fights can happen over things like awards, achievements, or simply just because of personal loyalty.

Slide 5 - Intense behaviour fandom wars examples

There are some of the examples I searched from the internet, from the ones about fans, sport, and anime. This is just a small part of it, but from here we can see how some of it end up turning into memes, or maybe a heated argument that includes bad words and such. For KPOP, the most famous fandom wars are groups like BTS vs EXO, so far reports in TV or G2, and for anime, there are people arguing about One Piece vs Attack on Titan, and it all talks about who is possible the 'best' in their own fields. These might look funny at first but they show how emotional and personal fandom identity can become.

Slide 6 - why do fans compete?

But actually, why do fans compete so intensely? After some research, I made it into two key points.

Have you ever felt like your phone knows you... too well?
 It shows you the exact video you were thinking about.
 The exact ad for the thing you never said out loud.
 And before you know it... you've been scrolling for hours.
 But here's the truth — it's not an accident.
 There's a whole secret life happening behind your screen.

We live in a world where we scroll, swipe, and click — but what if we're not the ones in control?
 In 'The Social Dilemma', five tech experts from Google and Facebook explain how social media doesn't just products — it sells attention. Our moods, our beliefs, and even our time become commodities.

After reflecting on myself, people around me, and reading books like Digital Minimization by Cal Newport and Strain Focus by Johann Hari, I realized two main things:

We're losing our ability to think.
 Because we're constantly consuming, not creating. We don't reflect on what we truly want, who we are, or what we believe.

We're scared of boredom — yet boredom is the key! (When we allow ourselves to be bored, our minds start working again — ideas emerge, creativity sparks.)

We're losing privacy — and with it, identity.
 There's no alone time anymore. We wake up to notifications and fall asleep to screens. But without it is essential: it's in silence and disconnection that our real identity takes shape — not the "ideal" version shaped by social media trends.

In the past, literacy meant being denied access to knowledge — people couldn't read, couldn't learn, and stayed uneducated.
 But in the modern world, a new kind of literacy is spreading.
 Today, it's not that we lack information — it's that we have too much of it.
 We are flooded with endless content, notifications, and opinions, and our minds become overloaded.
 We can't decide what matters anymore, and the result is the same as before — we stop

금상 수상자 대본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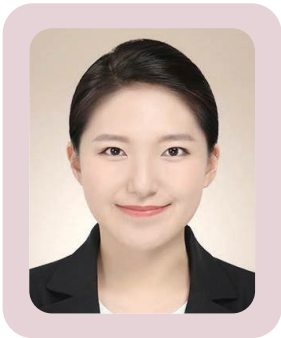
행사사진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권역 간 공유·협력으로 선도하는 SI 기반 대학 혁신의 미래



김선홍

동의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직원

5개 권역 동행, 대학 혁신을 위한 공유·협력 가치 확산

3주기 대학혁신을 향한 5개 권역 대학의 연대가 2주기에 이어 한층 공고해지며 협력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6~7일 부산 시그니얼에서 개최된 '2025 대학 간 공유·협력 기반의 대학혁신 공동 성과포럼'은 이러한 연대의 정신을 보여준 자리였다. 본 협의체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의 확산 및 공유를 위해 5개 권역 (수도권: 덕성여대 / 대구·경북·강원권: 계명대 / 충청권: 순천향대 / 호남권: 조선대 / 부산·울산·경남권: 동의대)이 뜻을 모아 구성한 네트워크이다. 이번 포럼은 2주기 첫 주관교였던 동의대학교가 3주기 사업의 전환점에서 다시 한번 주관을 맡아, 'SI 기반 기초 역량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대학 간 협력 체계를 재확인 하고 혁신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SI 교육혁신 우수사례 공유

공동 성과포럼에서는 3주기 사업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SI 교육혁신'을 주제로 대학별 우수사례를 공유 했다. 계명대학교는 능동형 AI 어드바이저 'KAILE'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기반 학생 지원 체계를, 덕성여자대 학교는 인간 중심 가치를 실현하는 'AI 윤리강령' 및 교양 교육 혁신 모델을 공유했다. 이어 순천향대학교는 교수자 혁신을 위한 업적평가 연계 제도 개선 사례를, 조선대학교는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신입생 기초학력 강화 체계를 발표했다. 주관교인 동의대학교는 AI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 될 'COLLABO∞(콜라보 인피니티)' 통합교육모델을 선보였다. 권역을 넘어 대학들이 축적한 SI 활용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 확산이 이루어졌다.

공유와 협력을 통한 상생 도약 및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 조성

행사 2일차에는 '3주기 사업의 대학별 변화상'을 주제로 영역별 실무 논의와 분임토의를 진행하며 대학 간 지혜를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자유전공 확대와 학생 맞춤형 AI 지원 시스템의 실무적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며 권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협력 지점을 발굴했다. 동의대학교 전경란 교학부총장은 "3주기 사업의 성공은 대학 간 견고한 공유·협력 체계에 달려 있다"며 이번 포럼의 의미를 강조했다. 협의체는 앞으로도 매 학기 권역별 순회 개최를 통해 특색 있는 주제로 교류를 이어가며, 5개 대학의 동반 성장은 물론 고등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혁신 모델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 성과포럼 개최 기념 단체 사진



공동 성과포럼 축사



공동 성과포럼 발표



공동 성과포럼 포스터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신입생 통합선발 경쟁력 강화 및 전공자율선택 활성화를 위한 전공자율선택제 통합 정보 홈페이지 구축



조아연

명지대학교
대학혁신추진단
팀원



명지대학교 전공자율선택제 통합 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majorfree.mju.ac.kr

추진배경

- 전공자율선택제(자율전공·단과대학 단위선발) 운영 확대에 따른 전공 탐색 단계 학생 수 증가
- 전공·유연학사제도·학생지원체계(프로그램 등) 관련 정보의 부서별 분산 제공으로 인한 정보 접근성 한계
- 학생 수요를 반영한 전공자율선택제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필요
- 수요자 중심의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한 공식 통합 홈페이지 구축 필요성 대두

추진 내용 및 관리 방안

1) 추진체계

-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팀 주관하에 전공자율선택제 통합 정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실무 TF 구성
- 유연학사제도 및 학생지원체계 관련 유관 부서 기획·개발 과정 참여
- 전교적 구성원 참여 기반 전공 정보 콘텐츠 검토·확인을 위한 학부·학과·전공 협업

2) 자료 사전 조사

- 국내 대학 홈페이지 내 전공탐색 지원 정보 유형(소개 방식, 주요 핵심 내용 등) 사전 조사 및 기획에 반영

3) 추진절차

- 기획 및 준비 단계
 - ① 전공자율선택제 통합 정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실무 TF 구성 및 사업 방향·세부 구성 논의(부서 간 1~5차 회의)
 - ② 전공자율선택제 제도 소개 리플릿 초안 작성
- 콘텐츠 기획 및 자료 수집 단계
 - ① 전공 소개 자료 요청(학부·학과·전공이 소개하는 전공소개/선배가 소개하는 전공소개/원페이지 전공소개)

② 학부·학과·전공이 소개하는 전공소개 콘텐츠 제작(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 참여)

• 검토 및 반영 단계

- ① 53개 학부·학과·전공 및 관련 부서 대상 콘텐츠 검토
- ② 학과·부서 검토 의견 반영 및 콘텐츠 수정·보완 및 리플릿 최종 내용 확정

• 가오픈 및 의견 수렴·반영 단계

- ① 전공자율선택제 통합 정보 홈페이지 시범 오픈
- ② 전공자율선택제 재학생 대상 온라인 의견수렴 조사 및 FGI 실시 후 개선 사항 반영
 - 무전공 재학생 대상 온라인 의견수렴 시행 : 126명(대상자 중 12.8%) 응답
 - 아너칼리지 재학생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 시행 : 아너칼리지 신입생 15명 참여

• 성과 공유 및 정식 오픈 단계

- ① 교내 홍보 강화를 위한 MJU 전공자율선택제 통합 정보 홈페이지 교내 시연보고회 개최
- ② 전공자율선택제 통합 정보 홈페이지 정식 오픈

4) 운영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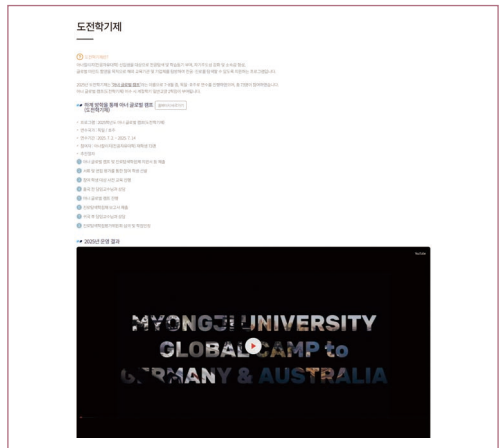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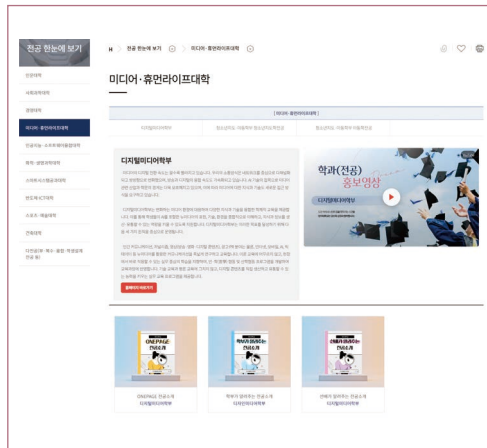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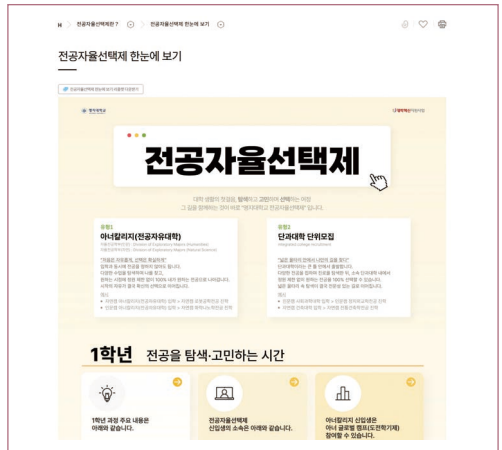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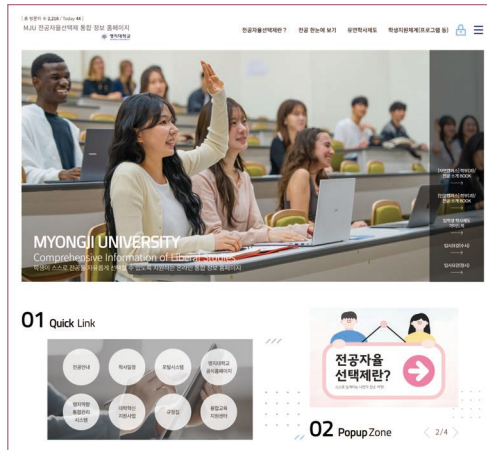
- 전공자율선택제 통합 정보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한 담당 부서 지정
- 전공·유연학사제도·학생지원체계 관련 정보의 정기적 점검 및 갱신
- 제도 변경 및 전공 운영 사항 발생 시 콘텐츠 즉시 반영 체계 운영
- 학부·학과·전공 및 유관 부서 협조를 통한 콘텐츠 유지·보완
- 페이지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홈페이지 지속 개선

추진성과

• 학생 이용 관점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정보 구조 설계

- ① 전공 탐색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정보 분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 여정을 기반으로 메뉴를 재구성함
- ② ‘전공자율선택제란?’, ‘전공 한눈에 보기’, ‘유연학사제도’, ‘학생지원체계(프로그램 등)’ 등 핵심 메뉴를 직관적으로 배치하여 최초 방문자도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FGI·만족도조사 기반의 실증적 개선 프로세스 구축
 - ① 자율전공 및 단과대학 단위선발 재학생 대상 만족도조사 및 아너칼리지 재학생 대상 FGI 결과를 분석해 실제 이용자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함
 - ② 정성·정량 데이터를 모두 활용한 개선 체계 확립으로 홈페이지 완성도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 대학 내 분산된 전공·학사 정보를 통합한 홈페이지 구현으로 ‘One-stop’ 전공탐색 지원체계 구축
 - ① 학사지원팀·각 단과대학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된 정보를 한 홈페이지에 통합하여 정보 접근성 향상
 - ② 신입생·재학생·예비 입학생 모두가 동일한 정보를 일관성 있게 확인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공식 정보 창구 마련
- 해당 홈페이지(majorfree.mju.ac.kr) 정식 오픈(2025.12.1.) 이후 누적 방문자 수 3,086명 달성(2026.02.03.기준 일평균 48명 방문)



향후 계획

- **(관리 체계)** 전공자율선택제 통합 정보 홈페이지 관리·운영 TF 구성 운영
 - ① 학사, 입학, 단과대학 실무자로 구성된 해당 홈페이지 관리·운영 TF 구성 및 분기별 회의 시행
 - ② 입학 홈페이지 상시 노출 메뉴 연동 및 입학 홍보자료 활용 현황 상시 모니터링, 무전공 신입생(아너칼리지 및 단과대학 통합 선발 입학생) 대상 담임교수 상담 활용 및 전공·진로 Festival 행사시 적극 활용 홍보 관리
- **(데이터 관리)** 전공별 관련 DB 업데이트·내용 개선 등 데이터 품질 지속 관리
 - 53개 전체 전공 소개 자료(전공 소개 영상, 학과 제작 전공 소개, 재학생 선배의 전공 소개 등) 중 일부 누락된 자료에 대한 추가 제작 계획 수립·추진 및 최신 자료 교체 등 지속적인 데이터 업데이트 및 내용 개선 관리
- **(환류)** 구성원 소통 기반 'One-stop' 전공탐색 지원체계 지속 개선
 - ① 구성원(교직원, 재학생) 대상 학기별 사용자 만족도 시행 및 의견 반영
 - ② 아너칼리지 및 단과대학 단위선발 무전공 신입생 대상 학기별 FGI 시행 및 의견 반영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자율로 전공 선택하자!”

탐색에서 결정까지, 학생 성장을 설계하는 자율전공학부



이영우

부산가톨릭대학교
 자율전공학부
 학부장

부산가톨릭대학교 자율전공학부는 간호·보건을 비롯해 경영, IT, 스포츠계열까지 폭넓은 전공 탐색을 기반으로 학생이 스스로 적성과 진로를 발견하고 전공을 선택하도록 돕는 교육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변화의 시대를 선도할 BIRD형 인재(Boundaries·crossIng·cReative·freeDom)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아, 융합·창의·비판적 사고·문제 예측 역량을 갖춘 미래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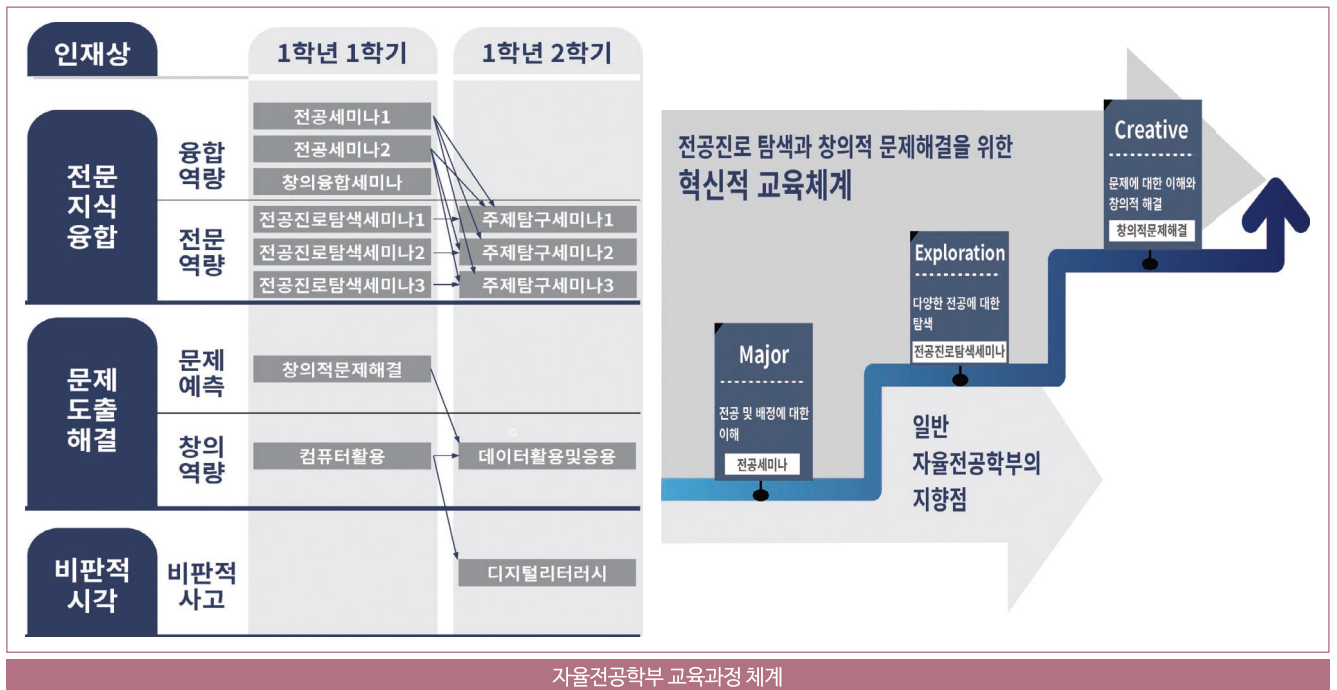


전공을 ‘정하는’ 대신, 전공을 ‘찾게’ 하는 1년: 차별화된 운영체계

자율전공학부의 가장 큰 강점은 입학과 동시에 전공을 확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입학 후 1년간의 전공·진로 탐색 교육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강점을 충분히 확인한 뒤 전공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또한 6개월 또는 1년 탐색 이후 희망 학과로 100% 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학생의 선택권과 진로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더불어 13개 융합전공을 통해 2개 학위 취득이 가능한 구조는 ‘단일 전공’에 머물지 않는 확장된 진로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교육과정 혁신: “체험 - 탐구 - 융합”으로 이어지는 실천형 전공탐색

교육과정은 ‘경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학기에는 전공진로탐색세미나(1~3), 2학기에는 주제탐구세미나(1~3)를 운영하여 대학의 13개 학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각 학과 교수진이 블록 강의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전공 이해도를 높인다. 또한 창의융합세미나를 통해 7개 융합전공을 체험함으로써 전공 간 연결성과 융합 역량을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다. 더불어 [창의적문제해결]·[데이터활용및응용]·[디지털리터러시] 등 교과목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수업을 운영하여, 전공 탐색이 실제 역량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 운영성과(정량): 20명 전공 배정 - '선택의 결과'가 '성과'로 이어지다

자율전공학부는 전공탐색-지도-배정으로 이어지는 운영체계를 통해 가시적인 전공 배정 성과를 창출했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3개 학과 중 10개 학과로 20명의 학생이 전공 배정을 완료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전공 배정 분포는 병원경영학과(4명), 사회복지학과(3명) 등으로 나타났고, 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방사선학과·치기공학과·언어청각치료학과(각 2명), 임상병리학과·컴퓨터정보공학과·유통마케팅학과(각 1명) 등 보건의료부터 IT·경영 분야까지 다양하게 확장되었다.

▮ 운영성과(정성): 소통혁신·케어혁신으로 완성하는 '학생 맞춤형 선택'

정량 성과를 뒷받침하는 동력은 촘촘한 지원 체계이다. 학생은 지도교수뿐 아니라 13개 학과 및 7개 융합전공 주임교수들과 소통하며 전공 정보를 다각도로 탐색할 수 있고, 자율전공교과운영위원회·융합교과운영위원회·학생회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학생의 선택 과정 전반을 밀착 지원한다. 즉, 자율전공학부는 '자율'이 '방임'이 되지 않도록 제도와 조직으로 케어하는 자율을 구현하고 있다.

▮ 학생의 가능성을 넓히는 '전공선택 플랫폼'

자율전공학부는 학생이 전공을 "결정당하는" 구조가 아니라, 충분한 탐색과 체험을 통해 스스로 선택하고 성장하는 경로를 제공하는 전공선택 플랫폼이다. 앞으로도 학과·융합전공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지도 체계를 고도화하여 전공 선택의 만족도와 진로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학부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 학생 인터뷰

[A 학생]

Q1. 입학 시 전공을 확정하지 않고 '탐색'하는 1년이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막연한 고민이 확신으로 바뀌는 시간이었어요. 보통 대학 입학과 동시에 전공이 결정되어버리지만, 우리 학부는 1년간 충분히 찾을 기회를 줍니다. 처음에는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 몰라 불안했지만, 13개 학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공진로탐색세미나'와 '주제탐구세미나'를 통해 각 학과의 실무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었어요. 덕분에 등급이나 점수에 맞춰 전공을 '결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 적성을 직접 확인하고 스스로 선택했다는 자부심이 큼니다.

[B 학생]**Q2. 학교의 지원 시스템 중 특히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있다면요?**

자율이 방임이 되지 않도록 밀착 케어해주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혼자 고민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소통 혁신 시스템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동행 지도교수님은 물론 13개 학과 교수님, 융합전공 주임 교수님들과도 직접 소통하며 다각도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창의적 문제해결'이나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수업을 통해 미래형 BIRD형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는 실감이 듭니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사회혁신, 배움에서 실천으로 : 소셜임팩트스쿨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사례



윤수진

서울여자대학교
교양대학 / SI교육센터
조교수

▮▮▮ 사업 추진 배경 및 프로그램 정체성

소셜임팩트스쿨(Social Impact School)은 서울여자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SWU2030의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교육 특성화 전략을 바탕으로 기획된 대표적인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프로그램이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적 전환기에 대학이 단순한 지식 전달 기관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적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는 교육 철학에서 출발하였다.

서울여자대학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교육 철학을 구체적인 교육 모델로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그 실천적 성과로 소셜임팩트스쿨을 운영해 왔다. 소셜임팩트스쿨은 사회문제를 학습의 대상을 넘어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아, 학생들이 사회적 가치를 직접 기획·실행·확산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설계된 실천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 교육 모델 및 운영 구조

소셜임팩트스쿨은 '자원순환(Resource Circulation)'을 핵심 주제로 설정하고,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을 넘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구조를 설계하며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교육 모델을 구현해 왔다.

학생들은 순환자원 교육자료의 기획-개발-보급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며, 지역사회, 기업, NGO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육 제공자로 활동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문제 인식, 이해관계자 분석, 해결방안 설계, 현장 실행, 성과 공유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경험하며, 학습 - 실천 - 확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교육 생태계를 체득한다. 특히 외부 협력기관의 실무자들이 멘토로 참여하여, 학생들이 제안한 기획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피드백과 조정을 제공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서울여대 SI교육이 지향하는 교과·비교과 연계 구조와,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 기반의 SWU-SI 플랫폼을 토대로 운영되었다. 이를 통해 단일 주체의 개별적 성과가 아닌, 다부문 파트너십을 통한 지속가능한 문제 해결에의 실질적인 기여를 추구하였다.

III. 학생 학습 성과 및 교육적 효과

소셜임팩트스쿨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회문제를 ‘돕는 대상’이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전공과 역량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활동일지 및 참여자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현장 실행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 사회적 영향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형성을 주요 성과로 언급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교육 콘텐츠를 직접 기획·운영하며, 대상자의 반응과 현장 조건에 따라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이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이 아니라, 실행과 조정, 협력의 연속적인 과정임을 체득하였다.

아울러 일부 프로젝트 결과물은 교내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아동·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시민 참여형 캠페인 등으로 확산되며, 대학 교육 성과가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였다.

III. 외부 인증 및 프로그램 확산 성과

소셜임팩트스쿨의 교육 성과는 교내 평가를 넘어,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증과 채택을 통해 그 공신력과 확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본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을 받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사례로 평가되었다.

또한 소셜임팩트스쿨에서 개발된 환경·자원순환 교육 프로그램은 기업의 사회공헌 및 공공기관 교육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대학에서 기획된 교육 콘텐츠가 외부 기관의 플랫폼에 적용된 사례로, 대학 교육의 사회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울러 일부 교육 콘텐츠는 국내 최대규모 NGO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어, 환경·지속가능성 등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교육자료로 활용되었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제작한 결과물이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소셜임팩트스쿨은 대학 교육이 실제 사회 변화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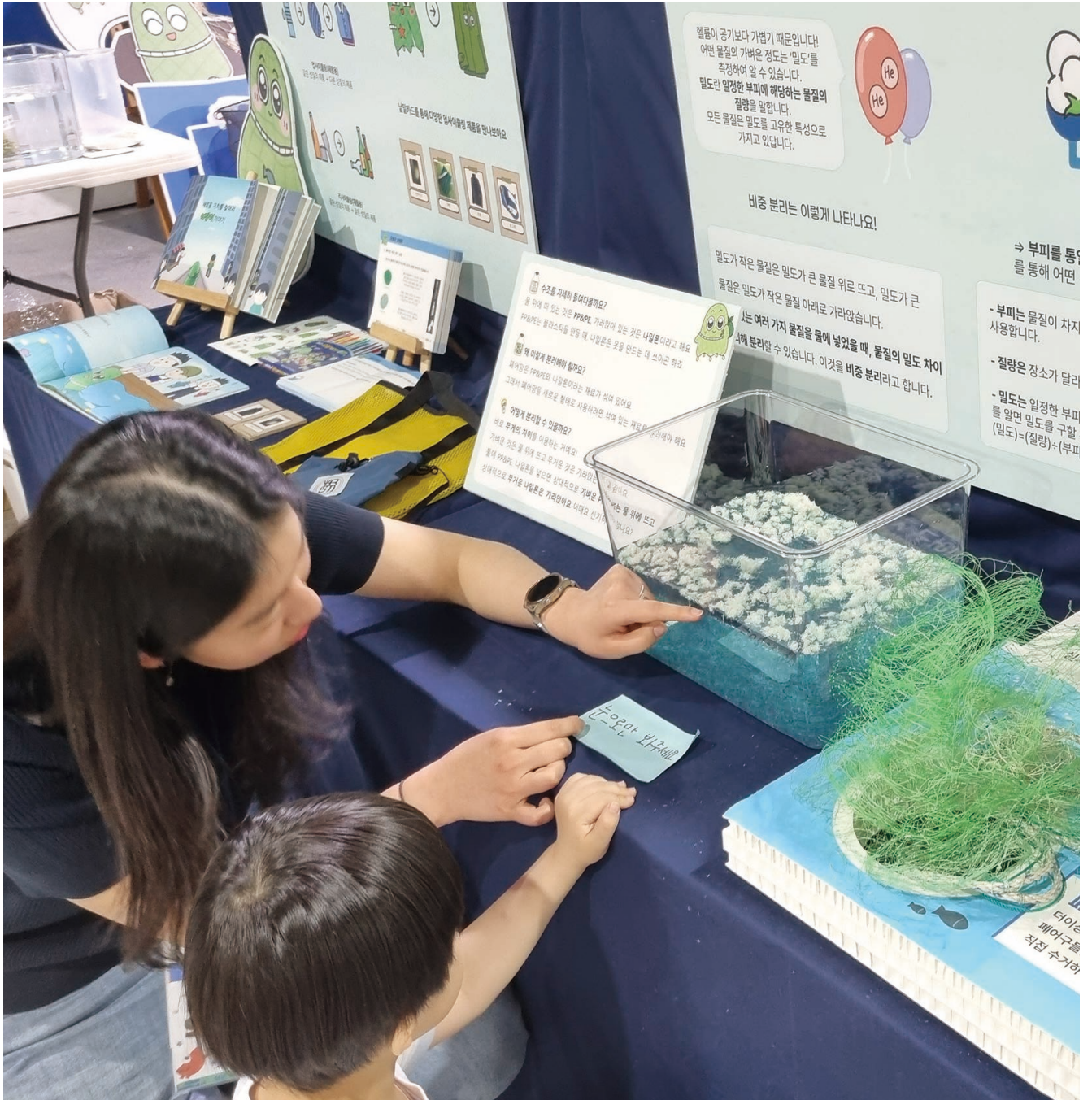
III.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성과 확장 및 향후 계획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소셜임팩트스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확장되는 데 핵심적인 기반이 되었다. 전담 인력과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해 외부 협력 기관과의 장기적 파트너십이 가능해졌으며, 프로그램은 연례 교육 모델로 정착하였다.

향후 소셜임팩트스쿨은 교과·비교과 연계 강화, 성과 측정 지표 고도화, 지역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대표적 사례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성장을 지역사회와 사회 전반의 변화로 확장시키는 혁신적 ESD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2025년 서울시립과학관 사이언스페스티벌 참여 사진 1



2025년 서울시립과학관 사이언스페스티벌 참여 사진 2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나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한 시간, EDISON 전공설계지원센터 SPARK UP 워크숍



박재원

수원대학교
EDISON전공설계지원센터
연구원

추진 배경 및 목적

전공자유선택제 1학년 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 다양한 전공을 탐색하는 시기에 자기 이해 부족과 진로 방향 설정의 어려움이라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한다. 이에 따라 단순한 전공 정보의 제공을 넘어, 학생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강점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를 구체화하여 실행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자기주도적 역량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수원대학교 EDISON 전공설계지원센터는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고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NLP(Neuro-Linguistic Programming, 신경언어프로그래밍)와 코칭 기법을 기반으로 한 'SPARK UP 워크숍'을 개발·운영했다.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며, 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가?", "그 목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핵심 질문에 스스로 답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궁극적으로 워크숍은 학생들이 명확한 자기 인식을 토대로 자기 주도적 학습 및 진로 설계의 기초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운영 내용

SPARK UP 워크숍은 2025학년도 2학기(10월~11월) 동안 수원대학교 인문사회융합대학 1학년 자유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단순한 정보 수용자 단계를 넘어 능동적인 탐색과 주도적인 성장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전체 운영 시간은 이론 50%와 체험 및 성찰 활동 50%의 균형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자기 주도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총 3회기(각 90분)는 자기 이해 - 목표 탐색 - 실행과 성찰이라는 단계적 학습 로드맵을 따랐다. 1회기에서는 개인의 가치, 신념, 강점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자신을 제한하는 부정적 신념을 긍정적 자기 대화로 전환하는 경험을 통해 자기 인식을 확장하였다. 이어서 2회기에서는 '10년 후 Best Self' 시각화기법과 신경가소성 기반의 멘탈 트레이닝을 접목하여 학생들이 생생하고 구체적인 미래 비전을 설정하도록 도왔다.

마지막 3회기에서는 설정된 비전을 일상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 루틴 설정, 난관 극복을 위한 회복탄력성 강화 훈련, 그리고 명상과 성찰을 진행하여 지속적인 자기 계발 역량을 완성하였다.

또한 모든 과정에서 학생들은 워크시트를 직접 작성하며 자신의 생각을 구조화하고, 각 회기마다 성찰 시간을 통해 학습 내용을 내면화하였다. 더불어 매주 개별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여 일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성장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활동 사진



1회기 활동사진



2회기 활동사진



3회기 활동사진

▮ 운영 성과

SPARK UP 워크숍에는 총 7명의 1학년 학생이 전 회기에 참석하여 소규모 프로그램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각 회기에서 가치·비전·실행 계획을 담은 개인 결과물을 완성하며, 자신의 진로와 전공 설계를 점차 구체화해 나갔다. 이러한 산출물 중심의 진행 방식은 학생들이 매 시간 변화와 성장을 스스로 기록하도록 이끌어, 학습의 주체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소규모 운영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 프로그램의 질을 더욱 높였다. 이를 통해 교과 수업에서 다루기 어려운 성찰 기반 탐색, 미래 비전 시각화, 실행 전략 수립 등 내면적·실천적 학습이 안정적이고 몰입도 높은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워크숍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성과가 확인되었다. 전 학생이 프로그램 전반에 '매우 만족'을 선택했으며, 강의 방식, 설명 이해도, 시간 구성 등 모든 세부 항목에서 최고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프로그램 참여 전과 비교했을 때 관련 역량이 '매우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100%로 나타나, 비교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자유 응답에서도 "미래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다", "목표가 명확해졌다", "나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었다"와 같은 긍정적 의견이 이어졌으며, 모든 학생이 향후 유사 프로그램 참여 의향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SPARK UP 워크숍이 소규모 코칭 기반 프로그램의 강점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주도 학습을 경험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참여 보고서 발췌

SPARK UP 워크숍은 단순히 진로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돌아보고 나아가 꿈과 목표를 다시 정비해 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진짜 공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새겼다는 문장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많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적어도 나 자신에 대해 한 단계 더 알아가고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어떻게 채워나갈까에 대한 큰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다.

- 인문사회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 최OO -

워크숍에 참여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거나 활용하는 전반적인 방식을 습득했으며, 자신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는 단계를 실습하였다. 또한 회복탄력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고, 내가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생각해봤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내 감정을 매일 간략하게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다. 지금도 과거 내가 겪었던 감정은 어렵듯이 기억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앞으로 감정 일기 기록은 꼭 실천하고 싶은 활동으로 남는다.

- 인문사회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 김OO -

워크숍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작은 공모전부터 다양한 대학 프로젝트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SPARK UP 활동은 나의 가능성을 스스로 확인한 계기였고, 나라는 사람의 미래는 생각보다 훨씬 밝다는 확신을 가지게 해주었다. 좋은 프로그램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고, 낮아진 자존감도 많이 회복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 능동적으로 주도적인 대학 생활을 만들어갈 것이다.

- 인문사회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 김OO -

▮▮▮ 향후 계획

수원대학교 EDISON 전공설계지원센터는 올해 'SPARK UP 워크숍'의 성과와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공자율선택제 1유형 신입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전공 탐색 단계의 학습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외부 정보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이해하고 미래 방향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다. 이에 따라 센터는 학습자 중심성과 전인적 성장을 핵심 가치로 삼고, 비전 탐색, 성찰 활동, 실행 전략 수립 등 교과에서 다루기 어려운 경험 기반 학습을 더욱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효과가 검증된 소그룹 코칭 방식을 한층 정교하게 발전시켜, 학생 개개인이 깊이 있는 탐색과 의미 있는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대학교 EDISON 전공설계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불안한 선택에서, 설계하는 전공으로! 데이터 기반 전공설계 지원 상담 시스템의 성공적 안착



임경희

수원대학교
 EDISON전공설계지원센터
 선임연구원

추진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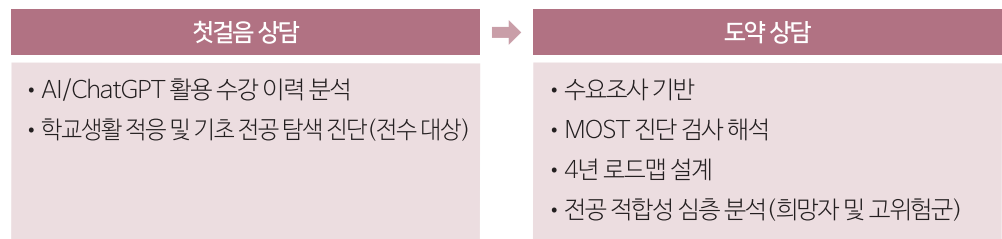
대학 입학은 새로운 시작의 설렘을 주지만, 수원대학교 인문사회융합대학 25학번 신입생들에게 ‘자유 전공’이라는 제도는 무한한 가능성인 동시에 막막한 두려움이기도 했다. 연구에 따르면 대학 1학년은 진로 정체감이 가장 낮은 시기이며,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오히려 결정을 회피하거나 불안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자유전공학부 신입생들의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Z세대와 알파 세대에 걸쳐 있는 이번 신입생들은 개인화된 정보와 즉각적인 피드백을 선호하지만, 대학의 복잡한 학사 구조 앞에서는 정보 부족과 진로 모호성을 호소했다. 이로 인해 자유전공학부 제도가 지닌 선택의 자유는 곧바로 자기 주도성으로 이어지기보다, 오히려 심리적·인지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자유전공학부 제도가 본래의 취지인 ‘자기 주도적 학습 경로 설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임된 자유가 아닌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다. 이에 EDISON 전공설계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심리적·인지적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층적인 전공 탐색 지원 상담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운영 내용

본 학부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 과정을 ‘탐색 - 이해 - 결정 - 계획’이라는 단계적 모델로 체계화하고, 각 단계에 맞춘 시기별 수요조사와 맞춤형 상담을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1차 ‘첫걸음 상담’과 2차 ‘도약 상담’으로 이어지는 심층 상담 체계를 구축한 것이 본 프로그램의 핵심 운영 전략이다.



9월에 진행된 ‘첫걸음 상담’은 학생과의 라포 형성과 전공 탐색 수준 진단에 주력했다. 상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를 활용하여 학생의 1학기 수강 과목과 관심사를 자동 출력하는 모델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168명 (68.3%)의 학생이 초기 상담을 완료했다. 이어지는 ‘도약 상담’에서는 MOST 진단 도구를 활용해 학생의 성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졸업학점 구성표와 복수전공 로드맵 등 구체적인 학업 전략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EDISON 센터는 학생 개개인의 수강 이력을 데이터화하여, 막연한 흥미가 아닌 실질적인 이수 가능성을 토대로 전공을 설계하도록 이끌었다.

활동 사진



1학기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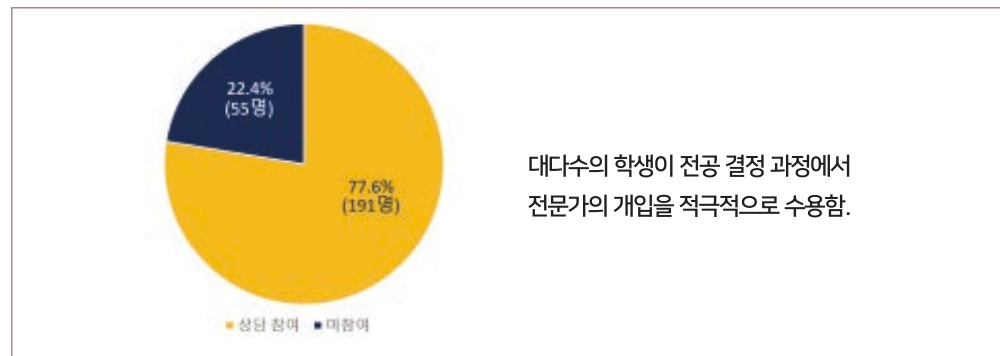
2학기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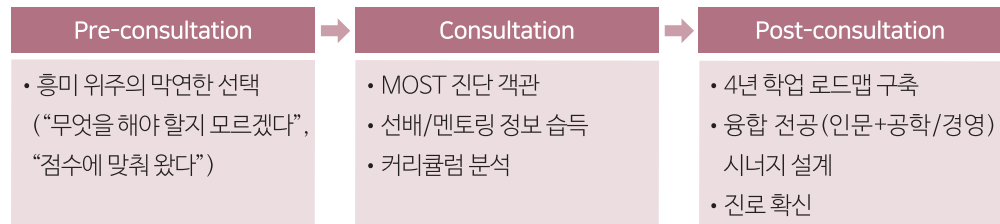
3학기 활동사진

운영 성과

체계적인 지원 상담 시스템의 성과는 높은 참여율과 실질적인 전공 결정 역량 강화로 나타났다. 전체 재학생의 약 77.6%인 191명이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분석 결과, 상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미참여 학생보다 전공 변경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담이 단순한 결정 유지가 아니라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더 적합한 전공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했음을 시사한다.



최종 전공 배정 결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법학, 행정학 등 전통적 인기 전공의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복수전공 선택에서는 타 단과대학(경영, 공학, SW 등)으로의 이동이 대폭 증가하는 등 융합적 진로 설계가 활발히 일어났다. 이는 학생들이 인문사회 계열에 국한되지 않고 다학제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결과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단순한 ‘학과 선택’을 넘어,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너지형’ 또는 ‘안정형’ 전공 조합을 스스로 구성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전공자유선택제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돕는 교육적 과정으로 기능했음을 증명한다.

참여 보고서 발췌

“처음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할 때는 단순히 전공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게 느낍니다. 자율전공 선택제는 모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정해진 전공만을 공부했다면, 나는 내가 수학을 좋아한다는 점도, 그것이 콘텐츠 기획이라는 분야와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나는 나라는 사람을 다시 관찰하고, 나의 진로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 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 회계학 융합 설계) -

“자율전공제도 덕분에 1학년 때부터 전공 탐색을 깊이 있게 할 수 있었고, 이는 제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근거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중략) 더 놀라웠던 점은 한국어언어문화전공이 저의 1순위 목표인 미디어커뮤니케이션전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어언어문화 수업에서 배운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는, 미디어 수업에서 콘텐츠를 기획할 때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두 전공은 별개의 섬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해 주는 다리와 같았습니다.”

- 조○○ (미디어커뮤니케이션 & 한국어언어문화 복수전공) -

향후 계획

이번 상담 운영 성과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전공 선택 과정에서 상담이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핵심적인 의사결정 지원 장치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단계적 상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 기준을 형성하며 보다 주체적으로 전공 결정을 준비할 수 있었다. 이는 상담이 학생 개인의 고민을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 전공 선택 과정 전반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학생들의 전공 설계가 단일 전공 중심에서 복수·융합적 관점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상담을 통해 복수전공, 마이크로전공, 전공 간 연계 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면서, 학생들은 단과대학의 경계를 넘는 학습 경로를 현실적인 선택지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상담이 전공 탐색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학생들의 학업 계획을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설계하도록 돕는 촉진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은 전공설계 상담 체계를 한층 더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입학 초기부터 상담을 통해 학생의 불안을 조기에 완화하고 전공 탐색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조기 개입형 상담 체계를 정례화할 것이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축적된 탐색 경험이 단절되지 않도록, 마이크로전공과 연계한 유연한 교육과정 구조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탐색 결과를 하나의 역량으로 체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혁신 성과의 장, '2025 SMU EDU EXPO' 개최



김호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혁신단
직원

추진배경 및 목적

숙명여자대학교는 2025년 한 해 동안 캡스톤디자인 교과, 창업동아리, 비교과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학생들의 우수한 교육혁신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이러한 교육활동 성과를 학교 구성원에게 널리 홍보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교육혁신을 선도하는 우수 모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자 2025 SMU EDU EXPO(이하 '엑스포')를 2025년 12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숙명여대 눈꽃광장에서 개최하였다.



2025 SMU EDU EXPO 전경

운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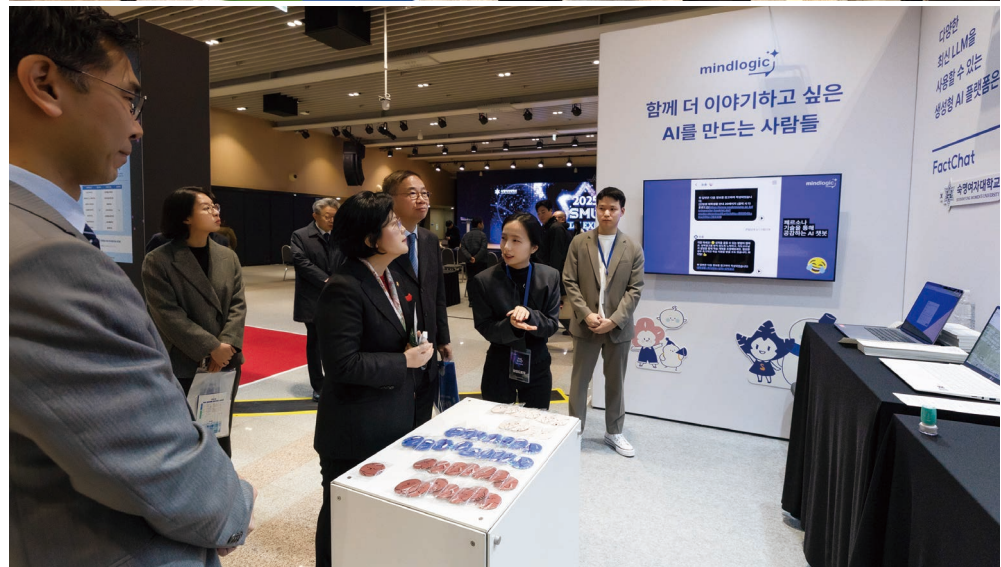
엑스포 당일, 자기주도진로설계프로젝트 10팀 / 창업동아리 'Fly to the Startup MVP' 10팀 /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 20팀 등 총 40개 팀이 부스를 통해 직접 출품작을 소개했으며, 성과 발표대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자기주도진로설계프로젝트 부문」에서는 장애인 이동권과 배리어프리(무장애) 문제를 데이터 분석으로 해결하고자 한 '다다름' 팀이,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에서는 군중 밀집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압사 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실시간 인파 밀집 대응 바리케이드를 제안한 '바리바리바리케이드'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창업동아리 부문」에서는 학원·과외 선생님을 위한 통합 수업관리 플랫폼 'ormee' (오르미)를 개발한 강수이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표가 이어지며 엑스포 분위기를 한층 더 활기차고 흥미롭게 이끌어냈다.



성과 발표대회 및 시상식

또한 이번 엑스포는 AI 기술이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 자리였다. 구글 클라우드 및 마인드로직과 협력해 운영한 체험 부스는 참가자들에게 기술 체험과 학습 혁신의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나아가 이번 행사에서는 숙명여대만의 멀티 LLM 기반 생성형 AI 플랫폼, '팩트챗 (FactChat)'의 시범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팩트챗'은 재학생과 교직원 등 학내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으로 앞으로 교육과 연구, 행정 업무 전반에 도입되어 대학의 AI 기반 교육 혁신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AI부스 체험 모습

그 밖에도 교수학습지원의 성과물과 IR 공모전 수상작이 전시되어, 구성원들이 대학의 교육 성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을 위한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엑스포의 열기를 더했다. 보물찾기와 스태프 투어를 비롯해 자개 그림톡 만들기, AI 포토부스, 푸드트럭, 대형 트리 포토존, 눈송이(숙명여대 마스크트 캐릭터) 굿즈샵 등은 시험 기간에 지친 학생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진시부스 체험 모습

문시연 총장은 “이번 엑스포는 숙명의 교육 철학이 강의실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의 도전과 성과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평가하며, “학생 여러분 안에 잠재된 아웃씹커(Outthinker)의 DNA를 마음껏 일깨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진 성과 및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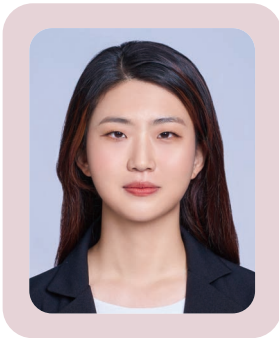
이번 행사에는 1,000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하며 대성황을 이뤘다. 특히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4.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해 행사 전반에 대한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입증했다. 무엇보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의 성과 확산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사업 이해도’ 항목에서는 4.7점을 기록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는 평을 받았다.

부스 참가 학생들의 반응 또한 고무적이었다. 부스 운영에 참여한 허여령(기계시스템학부 23) 학생은 ‘이번 경험이 큰 효능감과 자신감을 심어주었으며, 향후 새로운 도전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숙명여대 구성원이 일궈낸 교육 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로써, 대학혁신지원사업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중도탈락 잠재군 진로상담 체계화립(신라꽃피움)



이진경

신라대학교
교육혁신원
연구원

▮ 프로그램 개요

최근 국내 대학에서는 학생 중도탈락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5년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전체 대학의 평균 중도 탈락률은 10.71%, 특히 비수도권 사립대학은 11.74%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심리상담, 학과 면담 등 다양한 중도탈락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대학 또한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 완수와 대학 생활 적응지원을 위해 여러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교육혁신원은 '신라꽃피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업 중단 위험군 학생들을 위한 심리·정서, 진로·적응, 사회관계, 학습관리, 기초전공 학습력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혁신원, 교수학습개발센터, 진로개발센터, 학생상담센터 간 연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프로그램 운영내용

'신라꽃피움' 프로그램은 지도교수 추천 및 학생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교육혁신원에서는 대학적응력 검사와 초기상담을 통해 참여 동기와 필요 영역을 진단한 뒤, 상담·학습·진로 분야의 전문 인력과 연계한 단계별 지원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학사경고 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대학생활을 잘하고 싶은 학생 (잠재적 중도탈락 위험군의 순화어)까지 대상을 확대해 보다 폭넓은 학생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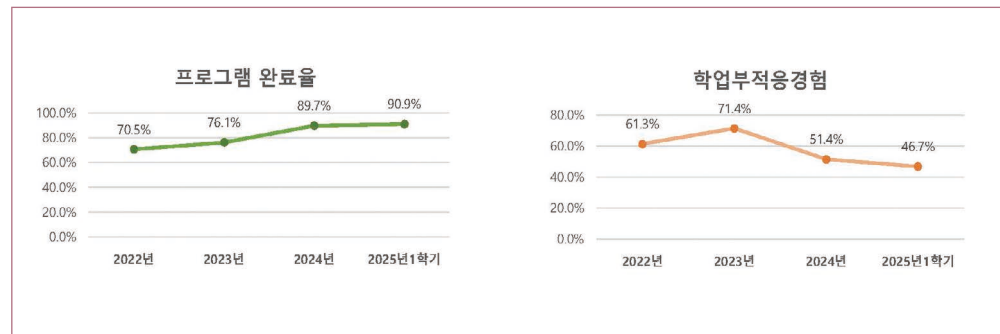
▄ 프로그램 운영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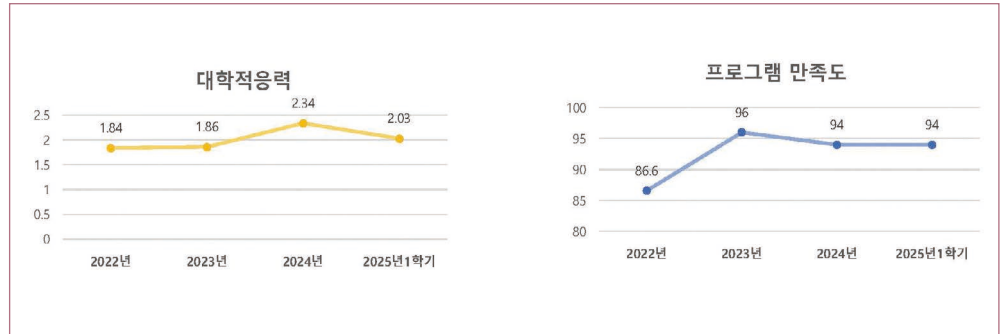
‘신라꽃피움’ 프로그램은 202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도탈락 예방을 위해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2년부터 2025년 1학기까지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생들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와 같다.

(연계기관 프로그램 진행에서 교육혁신원은 2022년 전문상담사가 통합 솔루션을 진행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학생 특성에 맞춘 전문적 지원을 위해 연계부서로 이관함)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학기
신청 인원		44명	46명	39명	33명
완료 인원		31명	35명	35명	30명
프로그램 완료율		70.5%	76.1%	89.7%	90.9%
학업부적응 경험 학생		19명	25명	18명	14명
의뢰문제 (상위 1,2위)		학습관리문제	심리정서문제	진로문제	진로문제
		심리정서문제	진로문제	심리정서문제	학습관리문제
대학적응력 (*낮음=1, 보통=2, 높음=3으로 변환하여 입력한 값의 평균)		1.84	1.86	2.34	2.03
연계 기관 프로그램 진행 수	교육혁신원	5회	-	-	-
	교수학습개발센터	12회	7회	8회	4회
	진로개발센터	3회	2회	14회	24회
	학생상담센터	11회	26회	13회	2회
프로그램 만족도		86.6점	96점	94점	94점





신라꽃피움 프로그램 2022년에는 완료율 70.5%에서 2025년 1학기 90.9%로 20.4% 증가하였다. 완료 학생 기준 학업부적응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2022년 61.3%에서 2025년 1학기 46.7%로 14.6% 감소하였는데, 이는 프로그램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다양한 학생들이 지원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대학적응력 평균 점수는 2022년 1.84에서 2024년 2.34로 0.5 증가하였으나 2025년 1학기 2.03으로 감소하였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2022년 86.6점에서 2025년 1학기 94점까지 7.4점 향상되었다.

초기상담 과정에서 “교내에 심리·정서적으로 의지할 곳이 있음에 감사하다.”는 학생의 말이 인상 깊게 남았으며, 만족도 조사에서도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희망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프로그램이 많으면 좋겠다.” 등 긍정적인 의견을 밝혀 본 프로그램이 중도탈락 학생들에게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여되었으리라 생각된다.

향후 계획

교육혁신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업 지속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신라꽃피움’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 학생 사례 분석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심리·정서, 학습, 진로 영역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업 회복탄력성을 높여 중도이탈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미래캠퍼스 혁신을 위한 행정조직 전면개편 시행



김소영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미래기획처 혁신전략기획팀
 차장

추진 배경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ESG 경영 실행 기반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래캠퍼스는 행정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운영 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정조직 전면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개편은 구성원 간 긴밀한 협력과 혁신이 가능한 유연한 팀제를 도입함으로써, 부서 간 장벽을 완화하고 창의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추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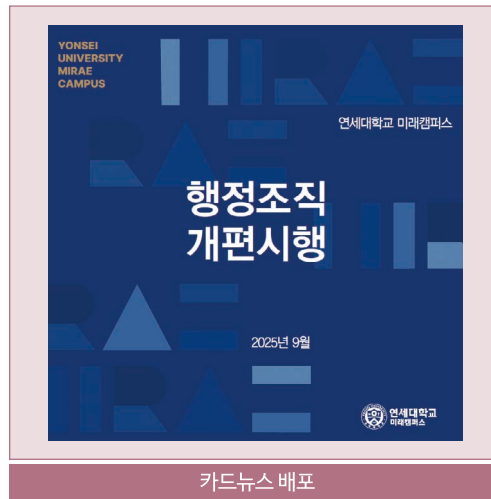
추진 내용

- 시행일: 2025. 9. 1.
- 주요 내용: 미래캠퍼스 행정팀제 도입 및 행정조직 전면개편
(부총장 직속부서, 행정부서, 부속기관, 대학(원) 행정팀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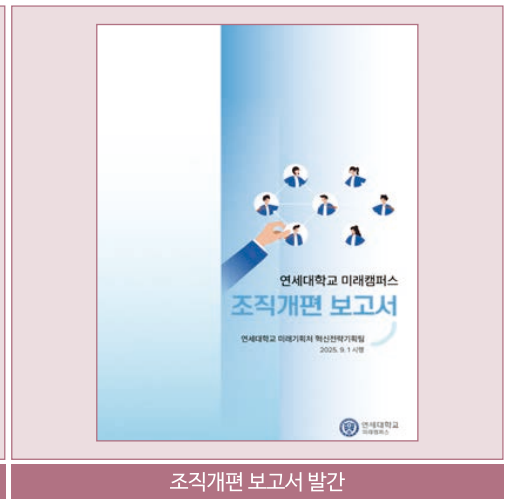
6처 중심 조직·기능 통합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미래교무처	수업·학적 통합	미래융합 교육혁신원	융합교육지원팀 교수학습지원팀 Edutech 지원팀
미래학생복지처	학생지원·인재개발 부서 통합		명칭변경, 기능조정, 교육성과관리 IR센터로 이관
미래총무처	인사·총무·구매 통합	미래윤리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심리상담센터
미래학술정보원	학술정보원·박물관 부서 통합		학생복지처 산하에서 독립조직으로 분리
대학	2개 팀을 행정팀으로 통합	미래 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 창업기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대학원	기능강화를 위한 명칭 변경		기능강화를 위한 개편

추진 성과

미래캠퍼스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본교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의사결정 효율화, 업무처리의 유연성 제고 및 평가 공정성 강화를 도모하였다. 기존 ‘부’ 중심 구조를 ‘팀’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행정조직 전반을 개설계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협업의 유연성을 동시에 강화하였다. 이는 융합·SI·창업·인권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학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으로, 미래캠퍼스 행정체계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카드뉴스 배포



조직개편 보고서 발간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대학 - 지역사회 상생을 여는 미래캠퍼스 연세콘서트 시리즈



이수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미래기획처 대외협력팀
직원

추진 배경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연세콘서트 시리즈'는 지난 20여 년간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이 함께해 온 대표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대학이 지닌 교육·연구 역량이 지역의 일상 속으로 확장되며 공공적 역할이 강조되는 지금, 지역사회는 대학이 보유한 인프라와 콘텐츠를 문화·교육 영역에서도 보다 폭넓게 공유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양질의 공연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대학이 지역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문화 향유 기반**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미래캠퍼스는 단순한 공연 제공을 넘어, 학생·교직원은 물론 지역주민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수준 높은 문화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연세콘서트 시리즈의 운영 방향을 정교화 하였다. 공연을 매개로 대학의 열린 비전과 교육 철학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대학 공간을 보다 친숙하게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본 사업은 '문화예술'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세대와 지역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관람객이 단순한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방향을 함께 만드는 참여자가 되도록, 설문 조사와 피드백 등 **이용자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운영 방식**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문화 프로그램으로서, 지역 문화 생태계를 확장하고 공동체적 연대감을 촉진하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추진 내용 및 운영 실적

구분	공연 제목	관람객 수
2025학년도 1학기	제119회 <피아니스트 이택기 리사이틀>	125명
	제120회 <카운터테너 정민호 리사이틀>	120명
	제121회 <아벨 콰르텟 리사이틀>	205명
2025학년도 2학기	제122회 <피아니스트 선율 리사이틀>	185명
	제123회 <뷔에르 앙상블 리사이틀>	142명
	제124회 <마스터즈 온 첼로 리사이틀>	231명
2025학년도 누적 관람객		1,008명

추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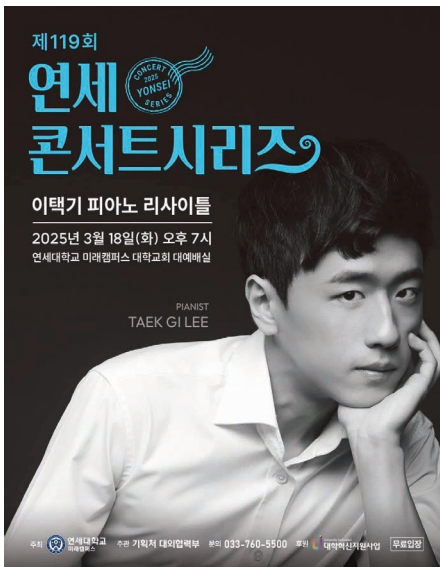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2025학년도 한 해 동안 연세콘서트 시리즈 6회를 개최하여 총 1,008명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회당 평균 168명). 이는 공연예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지역 여건 속에서도, 대학이 꾸준히 축적해 온 기획 역량과 운영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이 함께 모이는 안정적인 문화 플랫폼을 구축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시리즈의 특징은 '운영'보다 한 단계 앞선 '기획'에서부터 관람객을 중심에 두었다는 점이다. 공연 기획 단계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지역의 실질적 수요와 선호를 반영하고, 이를 프로그램 구성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참여자 중심의 운영체계를 강화했다. 그 결과, 관람객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악기와 연주를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요 만족 요인으로 꼽으며, 대학이 제공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 실질적 가치를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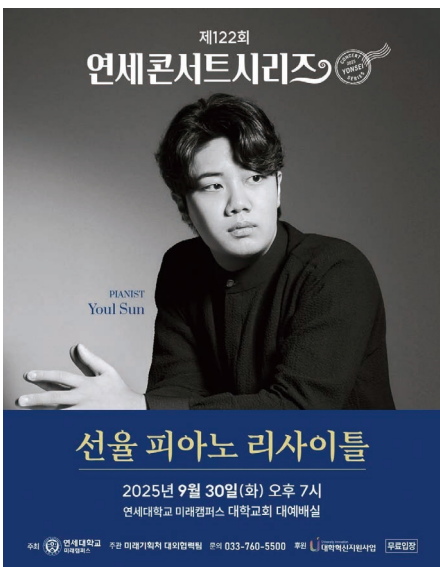
무엇보다 만족도 지표가 프로그램의 성과를 뒷받침한다. 2025학년도 관람객 설문 결과, 만족 이상 응답 비율은 94.47%, 이 중 매우만족 78.82%로 집계되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만족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연세 콘서트 시리즈가 단발성 행사를 넘어, 대학과 지역사회가 문화로 연결되는 대표 상생형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또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문화 자원을 환원하는 실천을 통해 ESG 가치(사회적 기여와 지역 상생)를 구체적인 성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향후 미래캠퍼스는 축적된 만족도·수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관객 특성에

맞춘 홍보·안내 방식을 고도화하여 참여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히는 협력 방식도 함께 모색함으로써, 연세콘서트 시리즈를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형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더욱 체계화·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1학기 연세콘서트 시리즈



2학기 연세콘서트 시리즈



제123회 <뷔에르 앙상블 리사이틀>



제124회 <마스터즈 온 첼로 리사이틀>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2025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영역별 포럼 개최



권의정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미래대학혁신지원사업단
 직원

추진 배경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는 대학의 혁신 방향성과 추진 전략을 심도 있게 탐색하고, 내부 구성원 간의 혁신적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5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영역별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영역별 혁신 과제가 갖는 의미와 지향점을 공유함으로써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였다.

추진 내용

영역	주제	일시	일시	운영부서
E·F	지속가능한 대학혁신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1일차) 2025. 11. 18.(화) 13:00~16:20	에나의 키친 (현문재 1층)	미래기획처 IR센터
		(2일차) 2025. 11. 19.(수) 13:00~16:30	एको 소극장 (학생회관 3층)	미래총무처 인사총무팀, 시설관리팀
B	디지털·AI기반 학생 지원 체계 구축 방안	2025. 12. 10.(수) 11:00~16:00	컨버전스홀 323호	미래학생복지처 경력개발팀 미래윤리인권위원회 심리상담센터 미래기획처 IR센터
C	AI기반 혁신 수업 방법의 실제와 확산	2025. 12. 11.(목) 13:00~17:00	컨버전스홀 318호	미래융합교육혁신원
D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 학문과 RC교육 혁신	2026. 1. 20.(화) 9:30~16:30	컨버전스홀 318호	RC융합대학
A	융합교육을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다양화	2026. 1. 21.(수) 10:00~15:00	컨버전스홀 318호	미래교무처 학사지원팀

추진 성과

2025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각 주무부서가 주관하는 「영역별 포럼」이 개최되었다. 본 포럼은 대학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전략을 공동으로 모색함과 동시에, 영역별 과제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나아갈 혁신의 길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포럼에서는 행정, 교육, 학생지원, 학사제도, 교육과정 등 대학 운영 전반을 주제로 설정하여 각 영역에서 추진 중인 혁신 과제의 의미와 방향성을 공유하였으며, 다각적인 사례 분석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번 영역별 포럼을 기점으로 대학 혁신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어짐으로써 미래캠퍼스의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속가능한 대학혁신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1일차)



지속가능한 대학혁신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2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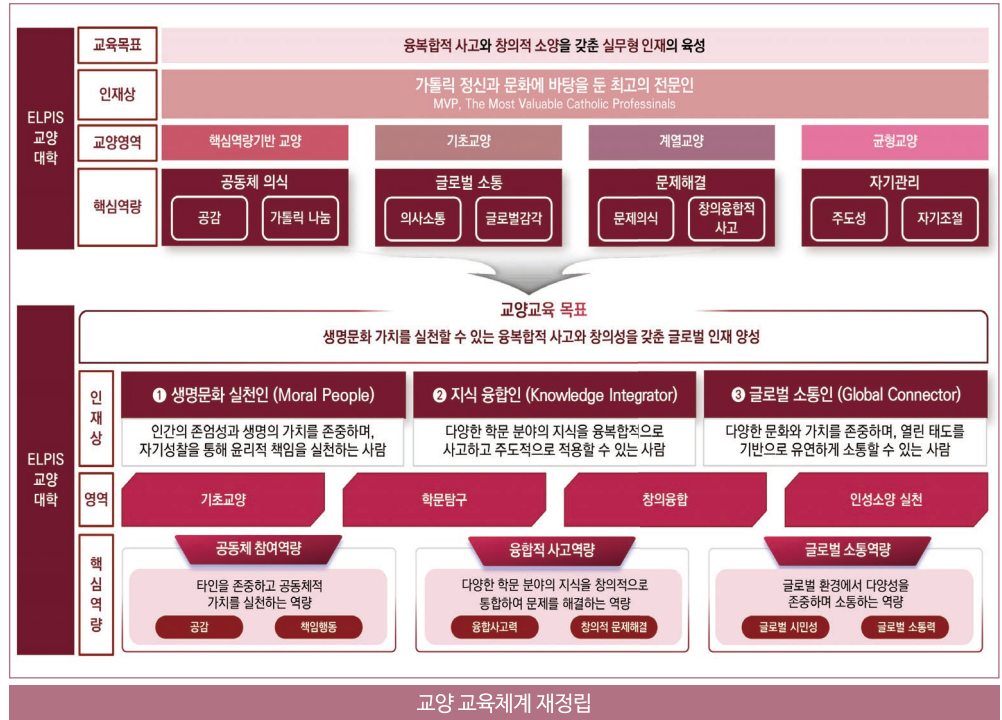


디지털·시 기반 학생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시 기반 혁신 수업 방법의 실제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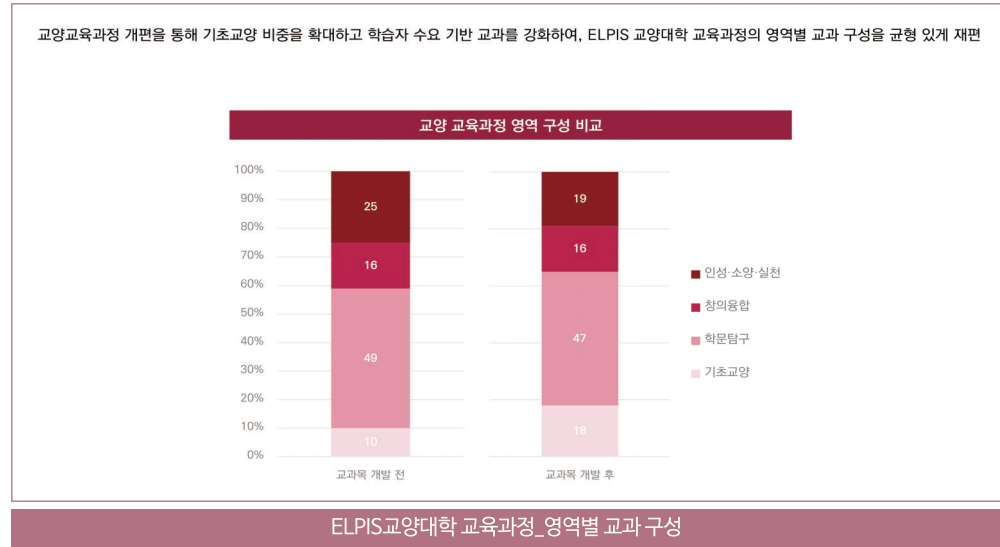


III. 학습자 수요 기반 교과 개발과 전공 연계 강화

기초 소양(의사소통·디지털 문해) 교과 확대, AI·데이터 등 디지털·미래역량 강화 교과 신설, 전공자율선택제와 연계한 체험형 교과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이해와 진로 탐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양-전공 교수 간 협력 기반 수업설계를 통해 학습 내용이 전공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였다.

III. 교양교육 성과: 영역 비중 재편으로 학습 기반 강화

교양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기초교양 비중을 확대하고, 학문탐구·창의융합·인성소양 영역을 균형 있게 재편함으로써 학습자의 기초역량과 융합역량을 동시에 강화하였다. 이는 교과 개발 전·후 비교를 통해 교양 교육 구조의 실질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 운영 및 환류 체계 고도화로 교육의 질 관리

교양교육위원회와 영역별 대표 교수회를 중심으로 PLAN-DO-CHECK-ACT 기반 환류 체계를 운영하여 교과 운영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개선하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와 성과 분석을 통해 교양교육의 질 관리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 Sky-way! 포럼에서 공유한 교양교육 혁신 성과

지난 2025 Sky-way 포럼에서 우리 대학은 ELPIS교양대학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교양교육 고도화 전략과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공유하였다.

-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 체계 재정립 사례
 As-Is/To-Be 체계와 ELPIS 교육모델을 통해 교양교육의 방향성과 구조를 명확히 제시
- 학습자 수요 기반 교과 개발 성과
 AI·디지털 리터러시, 미래산업 연계 교과, 전공 브리지형 교과 신설 사례 소개

- 전공자율선택제·체험형 교과 연계 모델
전공 탐색과 자기이해를 지원하는 교과 운영 사례 공유
- 교양교육 구조 개편에 따른 성과 지표
영역별 비중 변화와 학생 학습 기반 강화 성과 제시
- PDCA(PLAN-DO-CHECK-ACT) 기반 운영·환류 체계 구축 사례
교과 질 관리와 지속 개선 구조를 통한 내실화 전략 발표



2025 Sky-way 포럼

이번 발표는 학생성장 중심의 실천적 교양교육 혁신 모델로서 타 대학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교양교육 체계 개편과 운영 노하우의 대학 간 공유·확산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의 방향

인천가톨릭대학교는 소규모 대학의 장점인 밀착형 교육환경과 유연한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 경로를 세심하게 지원하는 맞춤형 교양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교양교육 로드맵을 기반으로 학년별 학습 단계에 맞춘 교과 이수와 상담·지도를 강화하고, 교수자-학생 간 긴밀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소규모 수업 운영을 통해 학습 몰입도와 교육 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전임교원의 교양교육 참여 확대와 영역별 협력체계를 통해 교과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수체계 변화에 따른 학생 혼란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생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교양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은 대규모 대학과 차별화된 학생 밀착형·성장 중심 교양교육 선도 소규모 대학 모델로 자리매김하며, 교양교육 혁신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확산해 나갈 것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교양교육의 학습 성과를 실천으로 확장하다 ‘함께형 교양樂 프로그램’을 통한 광주·전남권 연합 토론타운 운영 사례



김가원

조선대학교
창의교육팀
팀원

조선대학교 창의교육팀은 교양교과목에서 형성된 학습 성과가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실천과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통해 ‘함께형 교양樂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조선대학교 교양교육과정에서 축적된 기초학문 기반 사고력과 토론·의사소통 역량을 교과 외 활동으로 확장하고, 그 결과를 다시 교육과정 개선에 환류하기 위한 교과 연계형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2025년에는 교과 연계 리빙랩 활동의 후속 지원과 함께, 광주·전남권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합 토론타운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 2025년 11월 28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개최된 ‘2025 토론 배틀 - 대학 연계 토론타운’은 교류 교양교과목 수강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권역형 공동 토론타운 프로그램으로, 광주·전남권 8개 대학이 참여하여 각 대학별 대표 토론타운과 학생 청중평가단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회에는 각 대학의 토론참가 학생과 학생 청중평가단을 중심으로, 교수진과 참여학생 등 약 160여 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본 토론타운은 예선 - 본선 - 결승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운영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학별 대표팀이 동일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진행하고, 심사위원 평가와 학생 청중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토론 주제는 ‘시가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해야 하는가’로, 교양교과목에서 다루는 기초 학문적 사고, 윤리적 판단, 사회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이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토론 상황에서 적용하고 검증해 볼 수 있었다.

운영 과정에서는 목포가톨릭대학교와 국립목포해양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학 간 공동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토론 주제 선정, 심사 기준, 대회 진행 방식은 사전 운영 회의를 통해 참여 대학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각 대학은 대표팀 구성과 사전 준비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공동 운영 방식은 권역 대학이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공유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조선대학교에서 대회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학생 주도성이었다. 자료 조사와 논거 구성, 역할 분담, 발표 준비까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였으며, 대학은 토론 환경 조성 및 운영 지원에

집중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대학교 학생들은 교양교과목을 통해 반복적으로 경험해 온 토론 수업과 사고 정리 방식이 대회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 결과, 조선대학교 대표팀은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수상 실적을 넘어, 교양교육과정에서 길러진 사고력과 의사소통 역량이 교외 연합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한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교과 수업에서의 학습 경험이 비교과 활동을 통해 확장되고, 그 성과가 다시 대학의 교육 혁신 사례로 축적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 학생들 또한 토론 준비와 대회 참여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업 경험이 향상되었음을 체감했으며, 타대학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학습 수준과 사고 방식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조선대학교 교양교육과정이 비교과 활동으로 확장 가능한 학습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함께형 교양樂 프로그램’은 향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양교과와 연계된 비교과 프로그램이 단년도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정 개선과 환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구체적 운영 사례의 축적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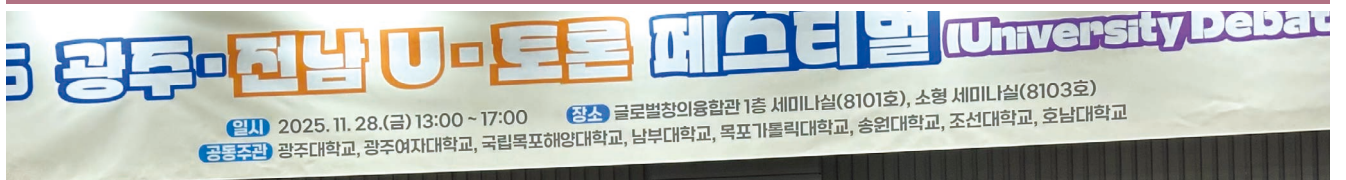
본 프로그램은 조선대학교 교양교육과정의 강점을 바탕으로 권역 대학 간 협력과 학생 주도 학습을 함께 실현하고자 한 실천 사례로서 의미를 갖는다.



대학 대표팀 선발을 위한 교내 예선전: 대학 대표팀 선발을 위해 진행된 조선대학교 교내 예선 토론 장면



토론대회 본선 진행: 광주·전남권 8개 대학이 참여한 연합 토론투회 본선 진행 모습



토론대회 우승: 광주·전남권 연합 토론투회에서 대상(1위)을 수상한 조선대학교 대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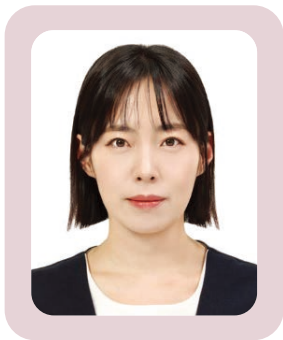


참여자 단체 사진: 조선대학교 토론대회 참여 학생, 청중평가단 및 창의교육팀 단체 사진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에듀테크시대 혁신 교수법의 적용과 확산 : 생성형 AI 활용 교수법 워크숍 운영 사례



문희라

차의과학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사원 / 교수파트담당

추진배경 및 목적

최근 생성형 AI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으로 대학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교수자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 교수법 워크숍 만족도조사 주관식 응답을 분석한 결과, AI 관련 강좌 확대, 시리즈형 프로그램 운영, 실습 시간 강화에 대한 교수자들의 요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차의과학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수자가 생성형 AI를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수법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교수법 워크숍을 확장·고도화한 '생성형 AI 활용 교수법 워크숍'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AI 윤리 역량 강화, 기초 - 심화 단계별 AI 활용 교수법, 실습 중심의 AI 교육, 그리고 우리 대학 교수자를 위한 맞춤형 AI 도구 활용 등으로 구성하여, 교수자의 AI 활용 교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하였다.

운영현황

2-1. 참여 교원 수 및 만족도

구분	운영유형	공연 제목	참여인원	만족도점수(5점만점)
2024학년도	이론형	대학의 연구윤리 교육과 인공지능 윤리	54	4.69
	실습형	생성형 AI, 대학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기	61	4.72
		진화하는 Chat GPT와 교육의 진화	74	4.82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 설계 및 평가	158	4.53
2025학년도	이론형	생성형 AI 윤리 역량 강화 교육	76	4.70
	실습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자료 제작 - 기초	52	4.67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자료 제작 - 심화	45	4.88
		우리 대학 교수자를 위한 실전 AI 활용법	83	4.83

※ 대부분의 강의를 실습형으로 구성하여, 실제 수업 적용 중심의 교수자 역량 강화를 도모함.

2-2. 교수역량 향상 기대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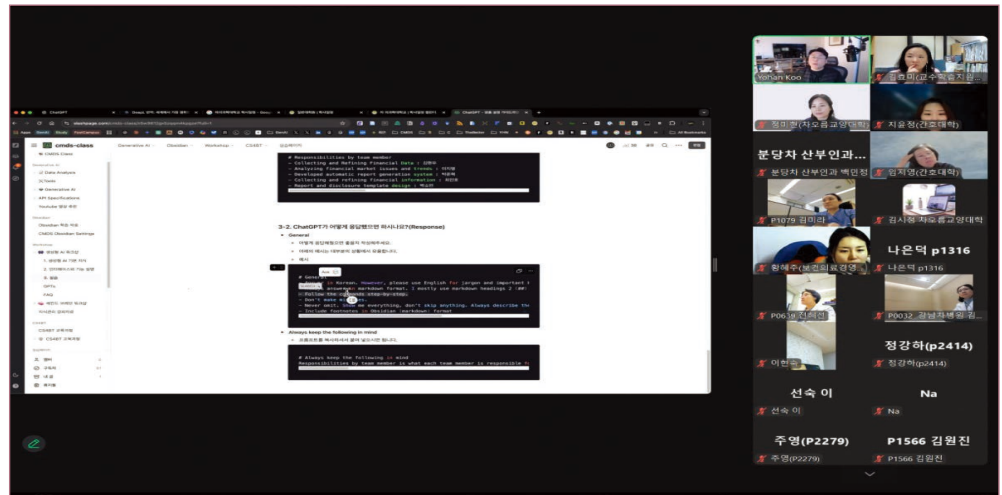
성과구분	지표	2024학년도	2025학년도	증감
성과 인식	교수역량 향상 기대도 (5점 만점)	4.37점	4.59점	▲0.22점
참여 지속성	2회 이상 참여 교수 비율	33.0%	49.2%	▲16.2%p

※ AI 활용 교수법 워크숍은 교수자의 역량 향상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반복 참여로 이어지는 지속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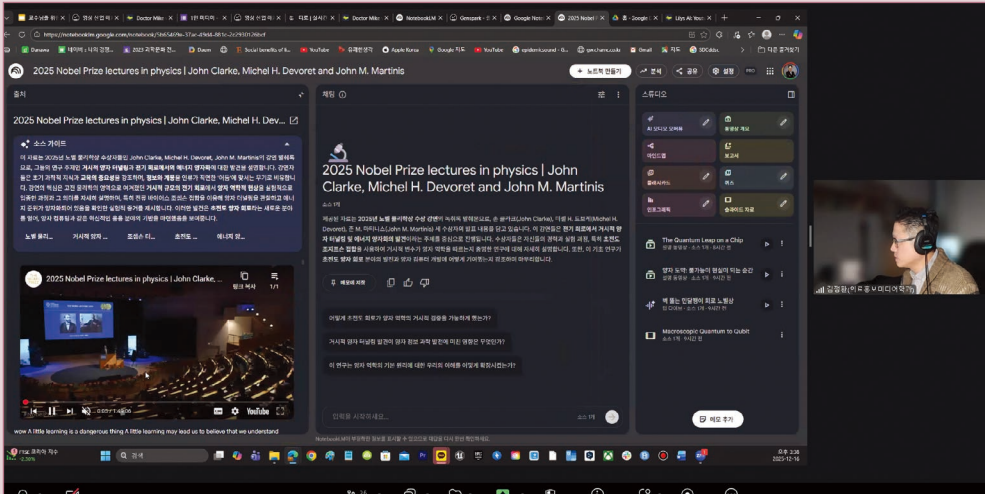
2-3. 워크숍 운영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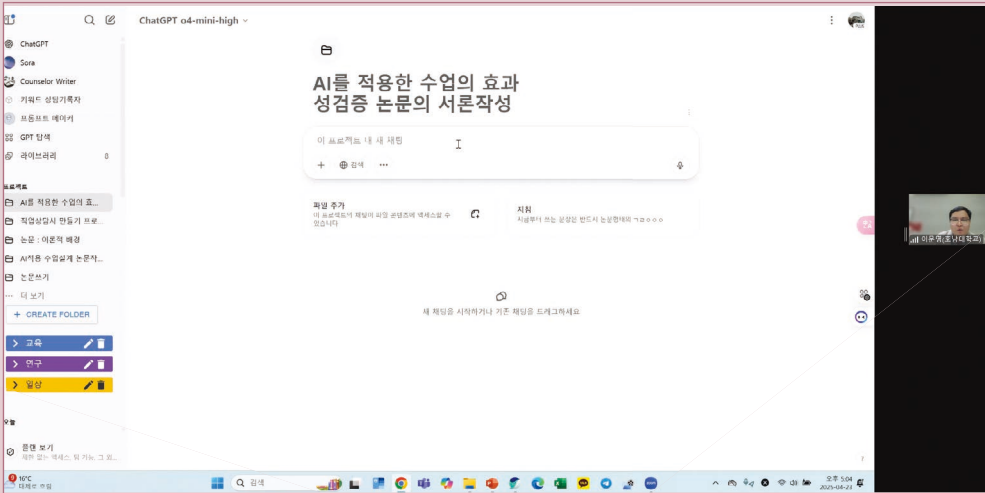
시 활용 교수법 워크숍 화면 01



시 활용 교수법 워크숍 화면 02



AI 활용 교수법 워크숍 화면 03



AI 활용 교수법 워크숍 화면 04

성과 및 의의

본 AI 활용 교수법 워크숍 프로그램은 단순한 AI 도구 소개를 넘어, 교수자의 실제 수업 적용을 중심으로 한 실천 기반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전체 프로그램 중 다수를 실습형으로 구성하여, 교수자가 생성형 AI를 수업 설계, 수업자료 제작, 평가 등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운영 성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2개 학년도에 걸쳐 운영된 총 8회의 워크숍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4.53~4.88점)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과 운영 방식의 효율성, 그리고 교수자의 요구를 반영한 주제 선정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교수역량 향상 기대도는 2024학년도 4.37점에서 2025학년도 4.59점으로 0.22점 상승하여, AI 활용 교수법 워크숍이 교수자의 교수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2회 이상 반복 참여 교수 비율이 33.0%에서 49.2%로 16.2%p 증가한 점은, 본 프로그램이 일회성 특강을 넘어 교수자의 지속적 참여와 학습으로 이어지는 신뢰도 높은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계획

차의과학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본 성과를 바탕으로 실습형 중심의 AI 활용 교수법 워크숍 확대 / 반복 참여 교수자를 중심으로 한 심화·고도화 과정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족도 조사 및 성과 지표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수자의 요구와 교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환류 기반 교수역량 강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AI 기초부터 융합까지 : 포항공과대학교 학부 AI 교육 혁신 사례



강미진

포항공과대학교
학사팀
대리

▮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포항공과대학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공 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인공지능(AI)에 대한 기초 역량과 흥미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2020학년도부터 체계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이 전 학문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학부 교육 초기 단계에서부터 AI에 대한 기본 이해와 활용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전공 기초를 형성하는 학부 1학년 시기에 「인공지능 기초」 교과목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였다. 더 나아가 전공 심화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역량을 기반으로 한 융합교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였다.

▮ 학부 AI 기초 교육 의무화를 통한 역량 기반 구축

포항공과대학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배경과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AI 기반 문제해결 역량을 선제적으로 함양하여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학부 1학년 대상 「인공지능 기초」(기초필수, 2학점) 교과목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본 교과목은 소속 학과와 관계없이 모든 학부생이 1학년 시기에 필수로 수강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무은재학부 무학과 선발·전공자율선택, 반도체공학과 계약학과 별도 선발 포함), 전교적 AI 기초 교육의 기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본 교과목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 성과 제고를 위해 조교 운영비, 과제·평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규 강의평가 외에도 별도의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수업 개선과 교육과정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인공지능기초」 교과목의 강의평가 평균 평점은 4.81/5점으로, 전체 기초필수 교과목 평균 평점(최근 3년 평균: 4.73/5점)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학부 AI 심화융합 교육체계 구축 및 인증제 운영

기초 교육을 넘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AI Intensive Course 인증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본 인증제는 「인공지능기초」(기초필수, 2학점) 이수 후, 대학이 지정한 심화 AI 교과목 3과목(총 9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경우, 학사학위 수여 시 'AI Intensive Course Certificate'를 함께 수여하는 제도이다.

심화 AI 교과목은 AI 기술 자체를 심도 있게 다루는 'AI Core' 과목과, AI 기술과 전공 분야의 융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AI+X'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학과의 기존 AI 관련 교과목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필요 시 신규 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학문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심화 AI 교과목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적 개선을 위해 대학 본부 교육위원회 산하에 '심화 AI 교과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최근에는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학부 AI 교육위원회'로 개편(2025.09.01.부)하고 변화하는 기술적, 사회적 trend에 부합하는 AI 교육 목적 재정립, AI 교육과정 교과목록 재정비, 융합부·복수 전공으로의 확대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매 학기 학부생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온라인 교내 회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인증제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사회적 트렌드 확산과 함께 AI Intensive Course 인증제 참여 신청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공학과 외 다양한 전공 학생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본 제도가 대학의 융합인재 양성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화 AI 교과목이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되며, 졸업학점 중복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 등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최소화한 제도 설계 역시 참여도 제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목 | [학사] (UG) 2023학년도 1학기 AI Intensive Course 인증제 신청 안내

작성자 | 학사팀/교무처 등록일 | 2022-12-02 04:09:36 Edit | 2022-12-05 오전 08:59:55 조회수 | 307

첨부파일 : (양식) AI Intensive Course 참여 신청서_22.12.2.hwp Download Preview

*This announcement only applies to undergraduate students. Please note that this announcement will be offered only Korean.

2023학년도 1학기 AI Intensive Course 인증제 신청 안내

1. AI Intensive Course 개요

- 학부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소양 및 전공 지식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
- 기초과목(2학점) 및 심화과목(9학점) 이수할 경우, **학위수여 시 AI Intensive Course Certificate 수여**
- ※ 필수 교육과정은 아니며, 이수를 원하는 학생은 교과목 선택하여 수강

기초 과정

인공지능 기초 I·II (2)

심화 과정

심화 AI 과목 (9)
(AI Core & AI+X)

학사 학위

AI 수료증

2. 인증제 적용 대상: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3. 신청 방법

가. 제출 서류: AI Intensive Course 이수 신청서 (첨부파일의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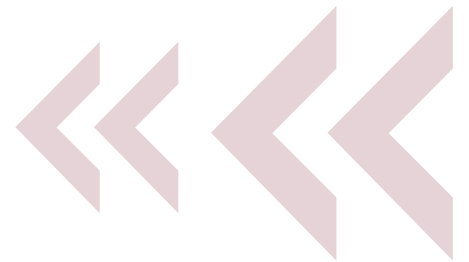
프로그램 운영 홍보게시글

AI-Native University 구축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포항공과대학교는 지속가능한 AI 캠퍼스 조성 과 대학 구성원의 전반적인 AI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교과과정 운영을 넘어 교육·연구·행정 전반에 걸친 AI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교육 및 행정 인프라 구축 과 캠퍼스 디지털 전환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대학 AI 위원회'를 구성(2025년 6월부)하였다.

또한 Microsoft와의 AI-Native University 구축을 위한 MOU 체결을 통해, 대학 구성원(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LLM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인 'POSTECH AI'를 오픈(2025년 12월부)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연구 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에는 대학 국제화 역량 강화와 연계하여 외국인 학생 지원을 위한 AI 동시통역 서비스, 교수 지원을 위한 영문 강의 영상 및 교육자료 생성 서비스, 학사 상담을 위한 AI 챗봇 시스템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 구성원의 다양한 AI 활용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교육·연구·행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AI-Native University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AI-First를 넘어 AI-Value Up으로 : 한성대학교 교수학습 생태계 구축



박현경

한성대학교
 교수학습센터
 교육연구교수

생성형 AI의 등장은 대학 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담론의 중심은 ‘AI 도입 여부’를 넘어 ‘AI를 통한 교육적 가치 실현’으로 이동하고 있다. 단순히 도구로서의 활용을 넘어 교수-학습의 질적 도약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성대학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융합대학’ 신설과 발맞춰 교수-학습 전반을 아우르는 AI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 교수자 및 학습자용 「HSU AI 활용 윤리지침」 개발

한성대학교는 교원과 재학생의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하여, 국내·외 대학 가이드, 수업사례, 연구를 분석하여 교수자 및 학습자용 「HSU AI 활용 윤리지침」을 개발하였다. 또한, 윤리지침을 기반으로 수업 설계를 위한 AI 수업 체크리스트, 교수· 학습 윤리서약서도 함께 개발하여 AI 선도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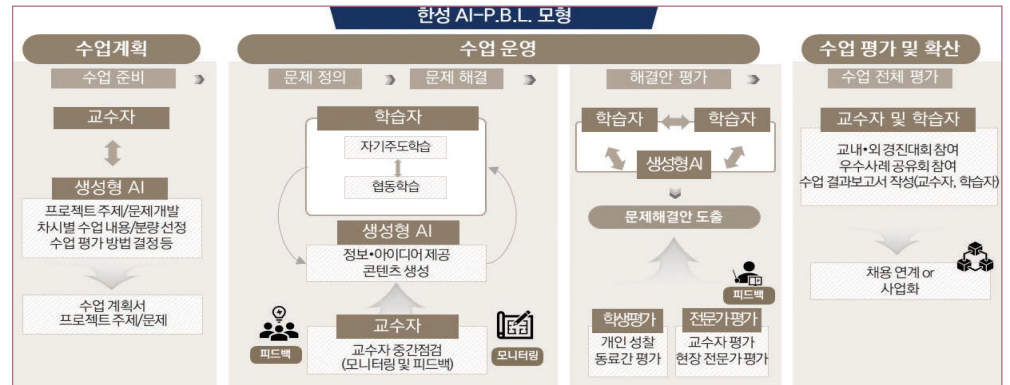
〈「HSU AI 윤리지침」 주요 내용〉

구분	영역	주요 내용	
교수자용	AI 기능과 한계 이해에 대한 책임	AI가 도출한 결과물에 대해 교수자 스스로 출처 확인, 잠재적인 편견, 오류, 정보의 최신성 등을 확인하도록 권고	
	수업계획서 작성	AI 활용 목적, 수준 결정 등을 비롯한 AI 활용 교수활동에 대해 강의 계획서에 명확히 표기할 것을 권고	
학습자용	학습준비	AI 기능 이해	학습 도구로서 AI 기능 및 AI 한계(오류, 환각, 편향) 이해
	수업참여	원칙준수, 교차검증, 학습 보조도구 인지	수업에서 AI 활용 준수 사항 및 검증방법, 유의사항 안내
	개별학습 및 과제활용	책임성, 저작권 오·남용, 정보유출	AI 결과물에 대한 책임 및 저작권 준수 방법, 출처 표기, 개인정보 보호 유의사항 안내
	수업(학습) 종료	학습 성찰	AI를 활용한 학습, 과제, 창작활동 종료 후 '결과까지의 과정'에 대한 성찰 유도

▮ AI 활용 수업운영 체계 수립 및 한성 AI-PBL 수업모형 개발

한성대학교는 AI 활용 수업의 질 유지와 학습 효과 극대화를 위해 ‘AI 활용 수업 운영’을 제도화하였다. ‘AI 활용 수업디자인(설계·운영·평가 컨설팅)’을 필수화하여 수업 전 과정에 걸친 밀착 지원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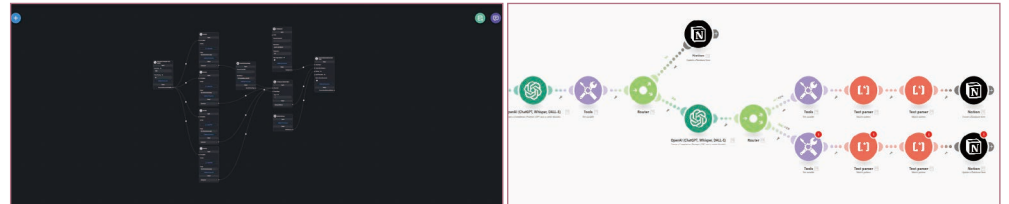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 연수 지원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교내 시 교수법 노하우를 공유하고 활발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2024학년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한성 AI-PBL 수업모형’은 PBL의 각 단계에 시를 유기적으로 접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를 매개로 더욱 깊이 있는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한다. AI-PBL 모형은 시를 활용한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게 수업 안내 및 권장하고 있다.

III. 학생 맞춤형 시 활용 역량 강화 교육 확대

〈MCP 및 RAG를 활용한 학습 에이전트 설계〉



한성대학교는 재학생의 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2학년도부터 시작한 시 코스웨어를 활용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학년도부터는 교양필수교과에 시 코스웨어를 도입하여 학생 간 학습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생성형 시를 활용한 프로젝트 형태의 비교과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중이다. 알고리즘 활용 및 데이터 분석(2023학년도), GPGs 제작 및 데이터분석(2024학년도), RAG 및 MCP를 활용한 학습 에이전트 설계(2025학년도)로 생성형 시 발전 트렌드에 맞춘 시 역량 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AI+OA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공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시각화하고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성대학교 시라는 새로운 동력을 통해 기술 혁신이 교육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 및 지원하여 대학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모델로 나아갈 예정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적응형 학습에서 AI 결합 수업까지 : 한림대 AI 수업모델의 진화



김정훈

한림대학교
교육혁신센터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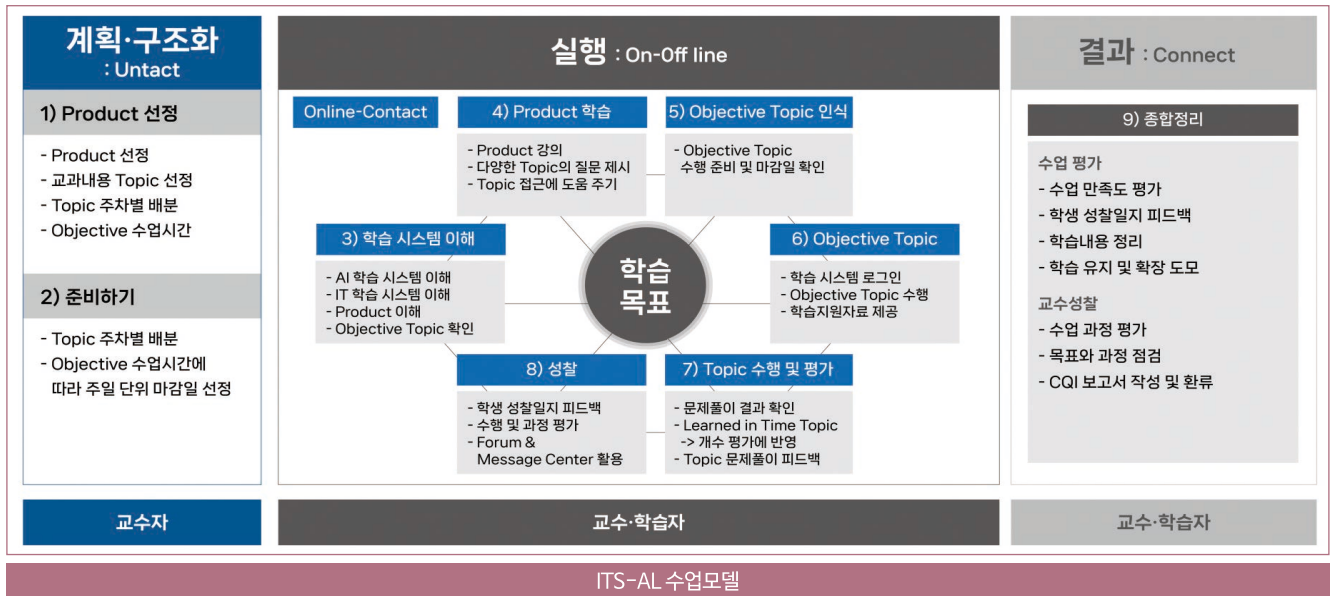
한림대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와 입학전형 다변화로 인한 학습자 간 기초학력 격차 심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학습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수·학습 모델을 2020학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개발·확산해 왔다. 특히 수학, 영어, 컴퓨팅 등 기초 교과 영역에서 대학의 개인 맞춤형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이에, 한림대학교는 HHL+(한림 하이브리드 러닝 플러스) 교육모델을 토대로 ITS-AL(Intelligent Tutoring System - Adaptive Learning) 교과목을 단계적으로 도입·운영하며, 학습자 수준에 따른 개인 맞춤형 학습을 대학 교육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 이러한 ITS-AL 운영 경험과 성과는 이후 AI 기술을 교수·학습 전반에 결합한 'AI 결합 교과목'으로의 확대로 이어지며, 대학 차원의 교육 혁신 수업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ITS-AL 교육모델의 정착과 운영 성과

ITS-AL 교과목은 AI 튜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사전 지식과 학습 과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문제 난이도와 학습 경로를 조정하는 적응형 학습 모델이다. 본 모델은 학습자의 이해 수준에 맞는 반복 학습과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을 통해 완전학습을 지원하며,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한다.

한림대학교는 ITS-AL 교과목 운영을 위해 교과목 개설 전 교수자 대상 컨설팅과 수업 설계 지원을 제공하고, 운영 과정에서는 학습 데이터 분석, 중간 점검, 학습자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그 결과 ITS-AL 교과목은 학습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며, 2025년 12월까지 371 강좌, 244 명의 교원, 13,080명의 수강생이 함께한 안정적인 수업 모델로 대학 내에 정착하게 되었다.



ITS-AL에서 AI 결합 교과목으로의 확대

ITS-AL 교과목의 확산과 정착은 AI 기술의 발달을 계기로 'AI 결합 교과목'으로의 확대를 촉진하였다. AI 결합 교과목은 단순히 적응형 학습 도구를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강의 설계, 학습 활동, 평가, 피드백 전 과정에 AI 기술을 전략적으로 결합한 수업 모델이다.

이 과정에서 한림대학교는 생성형 AI, 학습 분석 도구, AI 코스웨어 등을 교과 특성에 맞게 적용하며, 교수자의 수업 설계 역량과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동시에 확장하는 방향으로 교과목을 재구조화하였다. ITS-AL이 기초 학력 보완과 개별화 학습에 중점을 두었다면, AI 결합 교과목은 문제해결력, 사고력, 적용 능력 등 고차적 역량 함양까지 포괄하는 수업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2024학년도부터 운영된 한림대학교의 AI 결합 교과목은 총 274강좌, 273명의 교원, 11,735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운영되었다. 이로써, 수학, 영어, 컴퓨터 기초 교과로 시작된 ITS-AL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AI 결합 교과목은 현재 AI 조교, AI 튜터, AI 코스웨어 튜터(AI 선형대수 튜터, MedLearn-X, 융합과학수사 튜터)와 맞물려 운영되고 있다.

▮▮▮ 한림 AI 교육모델의 확산과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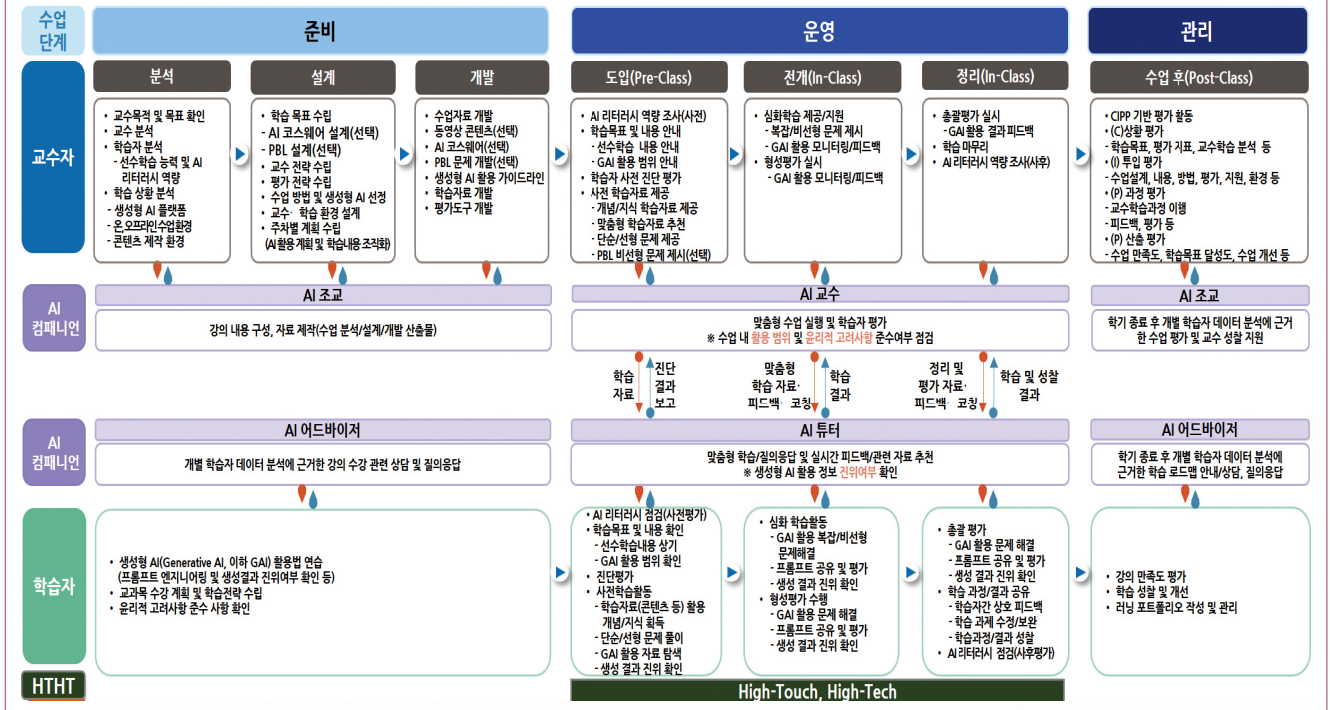
현재 ITS-AL 교과목과 AI 결합 교과목의 운영 성과는 학내 교수·학습 프로그램 공모전 우수 사례 선정, 학술지 논문 게재 등으로 이어지며 그 교육적 효과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더불어 한림대학교는 HTHT 대학 컨소시엄 활동과 타 대학과의 사례 공유를 통해 ITS-AL 및 AI 결합 교과목 운영 경험을 확산하고 있으며, 대학 교육 혁신의 선도 사례로서 위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림대학교는 향후 ITS-AL과 AI 결합 교과목을 연계한 단계적 수업모델인 AI-HiED(AI-Integrated Instructional Model in Higher Education)를 더욱 고도화하고, 대학 자체 플랫폼 기반의 AI 활용 수업을 전 교과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I-HiED 수업모델은 수업 전·중·후의 3단계 구조로 설계되어, 준비 단계에서는 AI가 학습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준과 특성을 진단하고 맞춤형 수업 설계를 지원한다. 운영 단계에서는 AI 튜터와 AI 조교가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과 학습 자료 정리를 담당함으로써, 교수자는 개별 지도와 학습 촉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관리 단계에서는 학습 데이터의 분석과 시각화를 통해 수업 개선과 맞춤형 학습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AI-HiED 수업모델은 LMS와 연계하여 전 교과목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아울러 학습 데이터 기반 피드백 체계를 정교화하고 교수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운영 체계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AI 기반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한림대학교의 AI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수자의 수업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한림대학교의 미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AI-HiED (AI-Integrated Instructional Model in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형 AI 결합 수업 모델)



한림대학교 고등교육형 AI 결합 수업모델 (AI-HiED)

학생사례

Student case

맛있는 책방



박연주

강남대학교
유니버설아트디자인학과
학생

저는 조기졸업을 목표로 대학교 3년 동안 늘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정작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업과 과제, 프로젝트, 아르바이트 등 일정에 쫓기듯 살다 보니 잠시 멈춰 서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지난 학기 본교 참인재대학 교학팀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맛있는 책방'에 참여하게 되었고,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독서를 통해 나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고 일상의 여유를 가져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러 추천 도서 가운데 특히 『도파민 네이션』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는 과정은 단순히 과제를 수행하는 경험을 넘어섰습니다. 책의 내용은 제가 얼마나 작은 자극에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디자인 전공 수업에서 저는 최신 트렌드, 자극적인 시각 요소, 빠르게 변화하는 스타일에 집중하는 것이

‘창의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며, 그러한 모습이 사실은 내면의 균형보다 외부 자극에 더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 통찰은 제게 큰 충격이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극을 줄기보다 마음의 평정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디지털 디톡스를 시작했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3시간으로 줄였으며, 산책을 할 때 이어폰을 빼고 주변 소리에 집중하거나 짧은 글을 쓰며 하루를 정리하는 등 작은 습관들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생활 습관 조절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 삶과 사고방식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참인재대학 교학팀 혁신 비교과 프로그램

맛있는 책방

책에서 나를 만나다

01 모집대상
강남대학교 (유학생, 조) 학생

02 활동기간
2025.09.2

03 활동과정
1. 교양 권장
2. 이라니 문
공지를 위
3. 과제관에
확인한다.

04 참여방법
이라니문과
과제 관에 후

영역별로 다양한 책 골라 읽자!

참여혜택

1. 보고서 1면당 마일리지 30점 부여 (최대 마일리지 300점 제한)
2. 우수 독서 보고서 장학금 지급
대상(2명) : 300,000원
우수상(5명) : 200,000원
장려상(18명) : 100,000원
※참여 인원예 따라 수상 인원 변동 가능

문의처 Tel. 031-280-3848
방문. 전동관 109호(참인재대학교)

강남대학교 KANGNAM UNIVERSITY 대학혁신 지원사업

그리고 ‘맛있는 책방’ 프로그램이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책을 읽고 끝나는 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은 후 관련된 사회적 현상, 기사나 연구 자료를 찾아보며 생각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지적 탐구의 즐거움을 넘어, 책에서 얻은 통찰을 현실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과정은 전공 수업에서 배웠던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의 ‘공감(Empathize)’ 단계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듯, 『도파민 네이션』은 ‘디지털 중독’이라는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힌 현상으로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경험은 제 사고력뿐 아니라 디자인 감각을 한층 더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맛있는 책방’에서 시작된 나의 성장 여정

독서, **삶의 방향과 중심을 잡아주는 힘**

맛있는 책방, 단순히 책을 읽고 끝내는 활동이 아니라, 사고의 폭을 넓히는 과정이었다.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의 ‘공감(EMPATHIZE)’ 단계와 닮아...
 책에서 얻은 깨달음을 머릿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
 ‘성찰의 태도’와 ‘공감의 시선’은 ‘평화’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자기 성장과 성찰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혼자서도 성장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책에서 얻은 깨달음을 머릿속 생각에만 두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길러진 성찰의 태도와 공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평화와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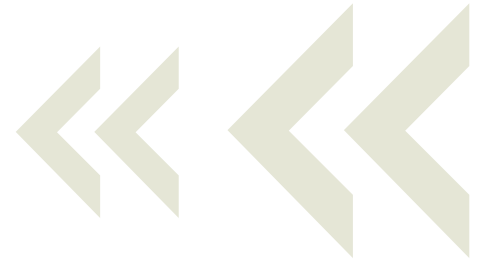
올해 7월에는 ‘2025 국내외대학생 4·3 평화캠프’에 지원서를 제출해 선발되어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여러 국가의 대학생들과 함께 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배우며, 서로의 시각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바라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단순한 역사 교육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와 관점을 통해 화해와 공존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느낄 수 있었고, 함께 ‘평화선언문’을 작성하는 과정은 제 마음에 강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또한 11월에는 한국대표단으로 ‘2025 한국·베트남 글로벌 명상캠프’에 참여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습니다. 하노이국립대학교와 문묘(Temple of Literature)를 방문해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며, 명상과 대화를 통해 ‘내면 성찰’의 경험을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사람들과 마주한 이 경험은, 공감과 성찰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최근 경험한 이러한 성장의 여정은 모두 대학혁신지원사업 비교과 프로그램 '맛있는 책방'에서 한 권의 책을 집어 든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독서 활동이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바꾼 혁신적 경험이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생각을 넓히고, 세계를 이해하고,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책방'은 필독 도서나 추천 도서를 많이 읽기 위한 것도, 독후감을 잘 쓰기 위한 연습도 아닙니다. 독서를 통해 '나를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며 목표를 견고하게 하는 여정'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성장하고 싶다면,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싶다면, 참인재대학 교학팀에서 진행하는 '맛있는 책방'에 꼭 참여하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2025학년도 학부생 연구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학생 인터뷰 공유



양서정

국민대학교
창의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전자화학재료전공
학생

인터뷰 참여자

- 학과 / 학번: 신소재공학과 / 20221032
- 이름: 양서정

Q.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현재 신소재공학부의 IMML (다기능집적재료연구실)에 소속되어 연구 역량을 쌓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며 2차원 반도체에 대한 흥미를 느끼던 중, 지도교수님이신 최웅 교수님께서 본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해주셨습니다. 평소 진행하던 연구를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생각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확인해보았고, 특히 본 프로그램에서 학생 장려금과 연구비 지원을 통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점이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실제 연구 과제를 기획하고, 결과보고서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신소재공학도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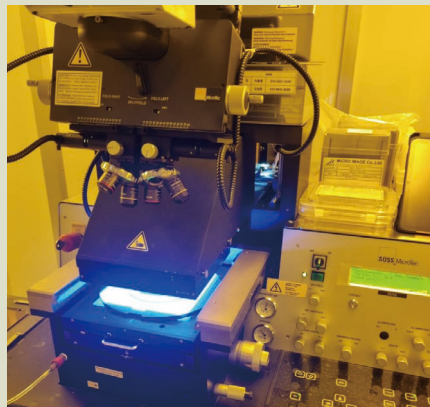
※ 6주 동안 어떤 방식(과정)으로 연구를 수행했는지 작성해 주세요

6주 간 “Monolayer MoS₂ MOS Capacitor의 C-V 특성 분석”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초기에는 ALD(원자층 증착법) 공정을 이용해 고농도 도핑된 P++ Si 기판 위에 약 10nm의 Al₂O₃ 절연막을 증착하였습니다. 이후 기계적 박리법으로 MoS₂ 광물층을 전사하였고, Thermal Evaporator로 80nm의 Au 전극을 증착하였습니다. 패턴 형성을 하기 위해 MA6노광기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통해 지름 40 μ m의 전극패턴을 완성하였습니다. 최종 제작된 소자는 LCR meter를 통해 50Hz에서 100Hz 주파수 범위에서 C-V 특성을 정밀 측정하였습니다.

Q.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프로그램을 통해 얻게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장 좋았던 것은 실패를 통한 공정 변수 제어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2025년도에 학부생 인턴십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MoS₂ 층의 분리를 실패하기도하고, ALD 증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그 원인 분석을 꾸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기판 오염으로 인해 Monolayer MoS₂의 접착이 약해지고, 노이즈가 발생하는 등 여러 난관에 부딪혔습니다만, 단일층 물질이 계면 상태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직접 확인하며 이론으로만 알던 계면 제어에 대해 실제 소자 성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험 과정에서 MA6, ALD 교육을 받음으로써 고가 장비를 직접 운용해 볼 수 있는 경험은 앞으로도 쉬이 얻지 못할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Q. 참여했던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 또는 추천해주세요

이미 연구를 진행 중인 학생이라면 이 프로그램의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연구 장려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추후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는 훌륭한 밑거름이 됩니다.

연구실과 같은 전문적인 환경에서, 교수님의 밀착 지도를 받으며 연구의 전체 사이클을 정립하고, 연구를 설계해나가는 경험은 학부 시절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실험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신소재공학 학우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프로그램 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학부생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스템과 장려금을 지원해주신 대학혁신지원사업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장비 및 시간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학부생들이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전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전문성을 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인턴십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연구의 즐거움을 깨닫고 자신의 꿈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프로그램 종료 후 성과내용이 있다면?

이번 연구의 핵심 성과는 Monolayer MoS₂ 소자의 계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공정 가이드 라인을 수립한 것입니다. 비록 기판 오염으로 인해 C-V 곡선을 얻는 것을 실패하였지만, 단일층 확보 이전에 다층 MoS₂를 이용하여 공정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 등을 진행하고, 실패 결과를 분석하여 후속 연구에서 고온 증착을 통한 계면 균일성 확보와 SiO₂가 없는 Si wafer 사용이라는 개선방안을 도출 하였습니다.

또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통해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으며, 연구 기간 중 여러 장비 운용 능력을 습득하는 등 실질적인 연구 역량 강화 성과를 얻었습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머물지 못했던 학생에게, 학교 안의 길을 밝혀주다 LAMP ON 프로그램, 학교 속에서 다시 자리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



조민영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상담심리학과
학생

▣ LAMP ON이란?

LAMP ON은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이 학교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1:1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성적 향상 활동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는 과정에서 멘티는 기반을 다지고, 혼자서도 굳게 설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멘토는 멘티를 도우며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이렇게 LAMP ON은 양방향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멘티와 멘토가 같이 성장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멘토는 주도적으로 생각하여 멘티가 목표에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줍니다. LAMP ON의 총체적인 목표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것.” 멘티가 학교 안에서도 빛날 수 있도록, 멘토는 대학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 참여 계기

사실 저는 LAMP ON 프로그램을 처음 봤을 때,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 “재는 왜 저럴까?”라는 말 속에서 점점 자신감이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여러 비교과 프로그램과 같이 교내 활동에 참여하며 조금씩 회복했고, 지금은 전공 공부에도 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의 나와 같은 처지인 누군가에게 길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고자 했고, 무엇보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LAMP ON의 멘토 지원서를 냈습니다.

▣ 프로그램 활동

프로그램이 시작하기에 앞서 학업 향상과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부서인 교수학습개발 센터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멘토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멘티와의 만남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멘토의 역할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멘티가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LAMP ON 프로그램을 통해 ‘멘티의 의지가 있으니 길을 잡아주면 성적 향상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첫 만남에서는 멘티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던 이유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졸업 이수 기준을 함께 확인하며 목표를 세웠고, ‘학업 증진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멘티가 직접 실천 항목을 적으며 “이건 진짜 지키겠다”고 다짐했을 때, 이미 멘티에게서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시작을 느꼈습니다.



LAMP ON 활동 모습

다음 회차에는 첫 만남에 들었던 멘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활동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멘티의 무너진 생활 패턴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활 루틴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짜보고, 코넬노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멘티는 스스로 시간표를 짜보고, 일정을 조정하며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멘티는 조금씩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멘티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게 격려했습니다. 시험은커녕 출석도 어려워하던 시기와 달리, 점차 스스로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활동이 누군가에게 진짜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학기가 중반으로 넘어가며 생활 패턴이 흔들릴 때는 학업보다 생활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피로감이 쌓인 멘티에게는 지금은 쉬어야 하는 시기라며 스스로 리듬을 되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며칠 후, 멘티가 “요즘은 다시 일정하게 자요”라고 말했을 때, 함께 노력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회차에서는 기말고사 계획을 점검하며 한 학기 전체를 돌아봤습니다. 새벽에 자던 멘티는 자정 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 반에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게임을 하는 대신 책을 빌려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생활 패턴이 안정되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과 낮은 자신감을 보였던 멘티가, 이제는 자신의 하루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변화는 생활습관의 개선으로 보이지만, 학교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비대면 활동을 통한 상시 상담 진행

활동 성과

멘토링이 진행되면서 멘티에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변화는 ‘생활의 회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규칙한 수면과 낮은 출석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점차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수업에 꾸준히 참석하려는 노력을 하여 나아진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새벽 5시까지 깨어있던 수면 습관이 자정 무렵 취침으로 바뀌었고, 아침 7시 반에는 스스로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하는 안정적인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무기력하던 시기에는 과제 제출을 버거워했지만, 이제는 계획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온라인 강의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스스로 수강했습니다.

멘티는 이전보다 자신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하루의 루틴도 스스로 점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멘티는 자신에 대한 신뢰와 효능감이 자라나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던 멘티가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변화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에 깊이 남아 그동안의 우리의 노력과 성장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며, LAMP ON 멘토로서 ‘도와준다’는 게 회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멘티의 변화는 저에게도 큰 배움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곁에서 지켜봐주는 일, 그것이 때로는 가장 큰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멘티를 최근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멘티는 다음날 일정이 있는 날에는 12시가 되면 집에 가 자신의 일상을 챙길 수 있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LAMP ON 활동 모습



LAMP ON 마지막 활동

▮ 느낀 점

멘토링 활동을 마무리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사람의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멘티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한 학기 동안 쌓아온 시간들이 결코 작지 않음을 체감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자신감과 불규칙한 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믿지 못하던 멘티가 이제는 자신만의 생활 패턴을 만들고, 수업과 과제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력만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멘티가 스스로를 믿어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멘토로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도움을 주는 일방향적인 관계라 생각했지만, 멘티와 유대를 느끼며 같이 성장했습니다. 누군가 변화하는 과정을 함께할 때의 보람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멘토링을 통해 믿어주고 지켜봐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대전 물특화 로컬 브랜딩 방안 아이디어 ‘마셔유(My Share U)’



배윤미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무역물류학과
학생

▮ 지역의 문제에서 출발한 첫 기획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 문제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환경과 생활에 맞닿은 문제는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를 어떻게 전달하고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공과 학년이 서로 다른 학생 4명이 한 팀을 이루어 진행되었고, 저는 무역학과 전공이지만 전공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자 영어영문학과 캡스톤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서는 팀장을 맡아 전체 일정 관리와 기획 흐름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팀의 방향을 조율했습니다.

서로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한 팀이었기에 초반에는 각자의 관심사와 생각이 달라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회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방향이 흐려진다고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보다는 ‘지금 대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 기획은 왜 필요한지’라는 질문부터 다시 던지며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수업 과제를 넘어서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지역 사회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학생의 시선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의 기준을 세워가며 막연하게 흩어져 있던 아이디어를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남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캡스톤 수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게 된 과정과, 그 속에서 경험한 변화와 성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학생들의 협력, 지역으로 이어지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이 기획이 수업이 끝난 뒤 그대로 사라지는 과제로 남지 않는 것이었고, 학생들끼리만 만족하는 결과물이 아니라 실제 대전 시민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획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이어가던 중 팀 내부 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어떤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전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 문항은 수도물에 대해 느끼는 불안 요소와 정보 부족의 원인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설문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도물에 대한 불신이 수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막연한 불안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 이를 통해 단순한 정보 전달보다는 시민이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자료 조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지만, 수자원공사에 직접 연락하고 관련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갔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기획의 방향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참여형 물 홍보관 ‘마셔유(My Share U)’라는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셔유(My Share U)’는 시민이 직접 수질을 측정하고 정수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며, 자전거를 타는 행동이 물 정화와 연결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으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며 수도물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공간 설계 역시 직접 제작해 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7년 대전에서 열릴 국제담대회와의 연계를 핵심으로 삼으며, 물의 도시 대전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에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기획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학교와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팀원 간의 소통 역시 중요한 요소였으며, 전공이 다른 만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설문조사나 사례 분석, 공간 구성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각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순간도 있었으나 ‘이 기획이 시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를 이어가며 방향을 맞춰 나갔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이나 주말에도 함께 모여 회의를 이어가며 단순히 좋아 보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구현이 가능하고 지속될 수 있는 기획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설계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는 시민들이 어떤 동선으로 공간을 이용하게 될지를 고려하며 여러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마셔유(My Share U)’는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한 ‘대전, 그리고 물’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학생성과페어에서도 최우수상을 받는 성과로 이어졌고 현재는 대학혁신포럼 발표를 앞두고 프로젝트 경험을 외부에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결과보다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이전에는 문제를 발견하는 데서 멈췄

다면 이제는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떤 방식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설문과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큰 배움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혼자였다면 해낼 수 없었을 일들을 팀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간 경험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며, 이번 대학혁신지원사업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역시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지역과 대학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 지역 사회와 연결될 수 있음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혼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경험을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사회와 연결된 배움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전, 그리고 물 공모전」 시상식

학생사례

Student case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뇌를 깨우는 1:1 AI 스터디 : [AI 학생을 활용한 메타인지 학습법]



이일규

충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학생

이번 「2025학년도 2학기 교수학습개발원 아이디어 공모전(나만의 학습 노하우 공유)」은 학생이 스스로 개발하고 실천한 효과적인 학습법을 발굴하여, 학우들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습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시상으로 끝나는 공모전이 아니라, 대학 생활 중 겪는 실질적인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한 ‘검증된 경험’을 나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전공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듣고 읽긴 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려니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반복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해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확실한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하나의 체계적인 학습 모델로 정리하여 학우들과 나누고 싶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정립한 것이, AI를 ‘학생’으로 두고 내가 선생님처럼 설명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 ‘반복’이라는 함정: 왜 공부해도 기억에 남지 않을까?

우리는 흔히 강의를 듣거나, 교재나 노트 필기를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어떤 학생에게는 ‘반복 학습’이 훌륭한 학습방법이 될 수 있지만, 어떤 학생에게는 그저 ‘눈에 익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메타인지의 부재는 결국 아는 것만 반복하게 만들고, 결국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발휘하지 못해 큰 곤란함을 겪게 합니다. 저는 이러한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학습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기 위해 AI를 활용한 새로운 학습 모델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AI 학생을 활용한 메타인지 학습법

'안다고 착각'하는 뇌를 깨우는 1:1 AI 스타디

당신은 안다는 착각에 빠져있습니다!

고전적 학습법의 대표적인 한계

수동적 학습

눈으로 읽기만 하면, 뇌는 '의숙함'을 '이해함'으로 착각합니다.

메타인지 부재

내가 '몰 모르는지' 정확히 모르니, 아는 것만 계속 복습합니다.

설명이 부재

'말로 설명'하지 못하면, 서술형 시험에서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르치는 나', '질문하는 AI 학생'

AI-메타인지 공부법의 개념

학습자 본인

- 학습자 본인이 '선생님'이 되어, 배운 것을 AI에게 '말로 설명'합니다.
- 이는 뇌에서 정보를 꺼내는 '능동적 인출(Active Recall)'과 동일합니다.

AI 학생

- AI는 '간판한 학생'이 되어, "왜?", "더 쉽게!", "근거는?" 같은 '근본적인 질문'으로 내 설명의 허점을 파고듭니다.

설명하다 막히는 그 순간, AI의 객관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바로 '내가 진짜 모르는 부분'임을 강제로 발견하게 됩니다.

How-To: AI 학생 '재대로' 세팅하는 법

AI에게 '역할'과 '규칙'을 명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이 프로토타입을 복사해 쓰세요!)

지금부터 너는 'AI 학생' 역할이야.

[규칙 1: 지식 한정 (가장 중요!)] 너의 모든 지식은 오직 내가 업로드한 [교안안.pdf]와 [필기노트.docx] 파일에만 근거해야 해. 절대 이 파일들에 없는 외부 지식(웹 검색 등)을 가져와서 질문하거나 설명하지 마.

[규칙 2: 역할 고정] 너는 이 수업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간판한 중학생'이라고 생각해. 내 설명을 듣고 100% 이해하는 게 내 유일한 목표야.

[규칙 3: 질문 유형] 내 설명이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논리가 건너뛰거나, 자료와 다른면 무조건 다음 질문을 해:

- "왜?"
 - "그게 무슨 뜻이야? 더 쉽게 말해줘."
 - "빙글고 많이 같은데 뜻 페이지에 있어?"
 - "필기에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데, 왜 그날 넘어가?"
- 준비됐으면 내가 [OO 과목] 설명 시작할게."

너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학생 모드'와 '교과'모드로 전환해야 해. 학생 모드에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하면 되고, 교과 모드에서는 업로드한 파일에 근거해서 학생이 모르는 부분을 설명해줘야 해.

프로세스: '막히는 순간'이 진짜 공부다!

🔴 설명 🟡 질문 🟢 막힘 🔵 재학습

- ① 설명: 학습자가 AI 학생에게 개념을 설명한다.
- ② 질문: AI가 "필기랑 설명이 다른데?"라며 반격한다.
- ③ 막힘(발견!): 학습자가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온다.
- ④ 재학습: 시를 '조건 모드'로 잠깐 바꿔 자료를 찾고, 완벽히 재학습한다.
- ⑤ 완성: AI 학생이 이해할 때까지 다시 설명한다!

메타인지 완성! '내 언어'로 체화된다

- ✓ 메타인지: 내가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짚어낸다.
- ✓ 능동적 학습: '설명'하면서 지식이 '내 언어'로 완벽히 재구성된다.
- ✓ 서술형 대비: '왜?'라는 질문에 답하며 논리력이 완성, 서술형 시험에 압도적으로 강해진다.



메타인지 공부법 카드뉴스

가르치며 배운다: AI 학생과 함께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원리

저의 학습법은 학습자가 선생님이 되어 AI에게 배운 내용을 말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AI를 지식이 없는 '간판한 중학생'으로 설정하면, AI는 "두 개념은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이어지는 거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줘", "근거가 조금 빈약한 것 같은데?"와 같은 예리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과정에서 답변이 막히는 순간이 바로 내가 진짜로 모르는 부분을 발견하는 '메타인지'의 순간입니다. 지식을 뇌에서 꺼내는 '능동적 인출(Active Recall)' 과정을 통해 학습 내용은 비로소 '나의 말, 나의 지식'으로 완벽히 재구성됩니다.



한 번 던져봐! 아이디어 데이 [아이디어공모전 프로그램 중] 1



한 번 던져봐! 아이디어 데이 [아이디어공모전 프로그램 중] 2



한 번 던져봐! 아이디어 데이 [아이디어공모전 프로그램 중] 3

▣ 막히는 순간이 진짜 공부, 메타인지로 완성하는 학습의 혁신

AI 학생의 반격에 대답하지 못하는 ‘막힘’의 단계는 곧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이때 AI를 ‘조교 모드’로 전환하여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학습하고, AI 학생이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다시 설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사용자가 틀린 답변을 내놓았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교 모드’로 변환되어 논리/개념의 오류를 바로잡아 줍니다. 이러한 활동의 반복은 논리력을 완성해줍니다. 특히 논술형 시험과 같이 ‘높은 논리력’과 ‘과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실전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갖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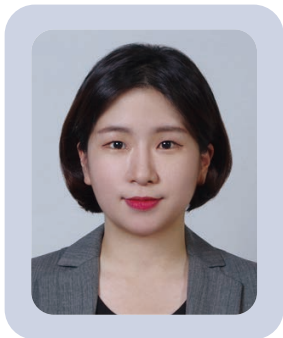
이번 공모전 참여는 저에게 단순히 ‘수기를 제출해 상을 받는 경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만의 암묵적인 노하우를 ‘다른 학우들도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 전략’으로 언어화하고 구조화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큰 배움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공모전은 학생이 자신의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안하고, 그 노하우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학습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생생한 학습 경험이 대학 전체의 자산으로 공유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더 많은 학우에게 ‘함께 공부하는 즐거움’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행사소식

Student case

서울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 페어' 성료 - "Make Your Own S.T.A.R!" 학생·교수·직원이 함께 만드는 초연결 교육혁신 축제 -



이지연

서울여자대학교
교육혁신단
직원

서울여자대학교 교육혁신팀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교내 구성원들에게 소개하고, 각종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2025년 12월 3일 '2025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 페어(FAIR)'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여대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전략인 S.T.A.R 전략을 콘셉트로 녹여낸 "Make Your Own S.T.A.R!"를 주제로 진행됐다.

S.T.A.R는 Self-directed Learning Design Support(자기주도 학습설계 지원체계 강화) / Teaching-Learning Innovation(교수·학습 혁신 및 AI 고도화) / All-connected Convergence Education(초연결 융합교육 체계 강화) / Robust Feedback System(교육혁신 전략 추진 및 체계적 환류 기반)의 앞 글자를 조합한 서울여대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 전략이다.

행사는 S.T.A.R Talk Stage(발표·시상식), S.T.A.R Road(홍보·전시·체험), S.T.A.R Connection(환류)의 세 가지 섹션으로 운영되었으며, 한 해 동안 수행된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의 대표 성과를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장으로 꾸며졌다.

▮ S.T.A.R Talk Stage - 성과 발표 및 시상식

먼저 S.T.A.R Talk Stage는 부서의 대표 성과와 학생의 우수사례 발표, 그리고 시상식으로 진행됐다.

부서 성과 발표로는 교수학습센터의 AI 활용 학습지원, 신입생역량강화센터의 자유전공 신입생 지원 체계 / SI교육센터의 소셜임팩트스쿨 우수 사례 발표로 구성되어, 사업 주요 참여 부서의 대학혁신지원사업 핵심 성과를 교내에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우수사례 발표로는 데이터혁신실 학생 데이터 워킹 그룹의 AI-데이터 기반 학생지원 프로젝트 / 교양대학 교학팀의 바롬심화종합설계프로젝트 우수 사례 /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 사례 / 국제교류팀의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베트남 유학생의 성장 경험 등 다양한 학생 성과 사례가 소개되어,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2025년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교내 구성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어,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 S.T.A.R Road - 홍보·체험·전시 부스

S.T.A.R Road에서는 프로그램 홍보, 체험형 교육 콘텐츠를 담은 다양한 부스가 운영되었다.

맞춤형 취업컨설팅 / 심리건강 프로그램 / 국제교류 프로그램 / 사회혁신 캠페인 홍보 부스와 / AI기반 학사상담 프로그램 체험 부스로 이뤄져, 참여자들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프로그램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SI교육센터, 교수·학습센터, 교양대학 교학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의 우수 사례를 담은 포스터 전시가 함께 진행되어 전체 사업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 S.T.A.R Connection - 아이디어 월

S.T.A.R. Connection은 사업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아이디어월로 꾸며졌다.

나의 혁신 성장기 / 우리 학교 다음 혁신은? 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 받아,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환류의 장을 마련했다.



‘함께 해요, 대학혁신지원사업!’ 발표



포스터 전시



학생발표



시상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2025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 페어

Self-directed Teaching-learning All-connected Robust-feedback

MAKE YOUR OWN S.T.A.R

12. 03. WED 10:00 ~ 17:00
50주년 기념관 1, 2층 로비 & 국제회의실

주관 서울여자대학교 후원 교육부 NRF 한국연구재단

행사 포스터



부스전경



아이디어 월

■ 구성원 참여와 만족도… “S.T.A.R 모델의 성과 확인”

이번 행사에는 교내 구성원 및 외부인사 총 322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의 99.6%가 행사에 만족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참여 동기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한 학생 참여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을 30개 이상 참여해 시상식에서 수상한 학우를 보고 큰 자극을 받았다”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선영 교육혁신단장은 “서울여대는 학생 중심 교육혁신을 위해 S.T.A.R 모델을 지속 정교화할 것”이라며 “초연결 기반 융합교육과 시·세대 교수·학습 혁신이 동시에 발전하는 미래 교육체계를 구축해나가기 위해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업 참여를 독려했다.

개회식



▲ 개회사_이주열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



▲ 환영사_허정은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



▲ 축사_최교진 교육부 장관(대독)



▲ 영상축사_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 축사_윤승용 남서울대학교 총장



▲ 축사_전민현 인제대학교 총장

기조강연

▼ 기조강연_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



장관 표창 수여



▲ 대학혁신지원사업 유공자 장관 표창 수여

교육 session 혁신 사례발표 1

▼ 홍석민 한림대학교 New Hallym 혁신본부장



교육 session 혁신 사례발표 2

▼ 정석재 광운대학교 기획처장



교육 session 혁신 사례발표 3

▼ 박주식 울산대학교 기획처장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학생 수기공모전 대상작 발표



▲ 성재영(연세대)



▲ 김하진(한동대)

대학혁신지원사업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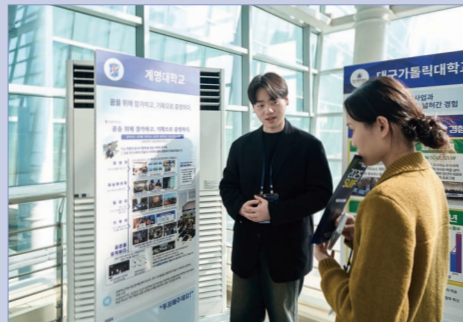


▲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학생 수기공모전 시상식_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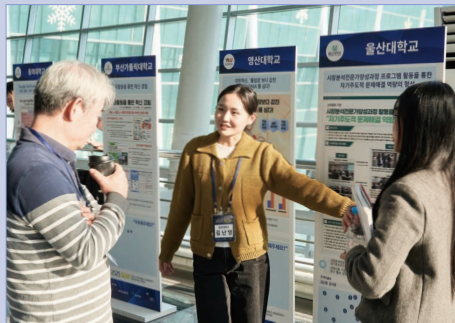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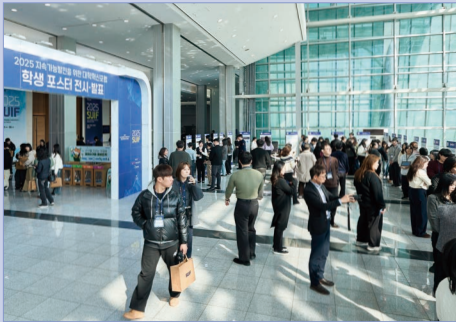


▲ 대학혁신지원사업 유공자 이사장 표창 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 포스터 전시·발표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 포스터 전시·발표



학생지원체계개선 1



▲ 좌장_주현정(가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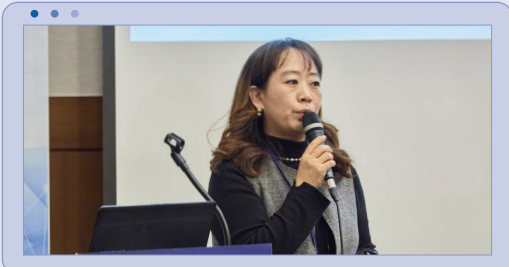
▲ 김종건(동서대)



▲ 권기숙(동국대 WISE)



▲ 김태훈(나사렛대)



▲ 이성아(한국성서대)



▲ 유혜숙(대구가톨릭대)



▲ 이석형(서경대)



▲ 유현주(안하대)

학생지원체계개선 2



▲ 좌장_이유경(동국대 WISE)



▲ 신서원(인제대)



▲ 정재민(후계예술대)



▲ 안정민(서울시립대)



▲ 이은정(연세대(미래))



▲ 홍수현(한림대)



▲ 전해경(호원대)



▲ 조혜련(서원대)

학사제도 유연화 1



▲ 좌장_차지철 (동명대)



▲ 정지연 (동명대)



▲ 양민지 (부산외국어대)



▲ 최화숙 (한세대)



▲ 목지수 (서울시립대)



▲ 송윤정 (조선대)



▲ 김신명 (영남신학대)



▲ 박민경 (경운대)

학사제도 유연화 2



▲ 좌장_박형준(부산외국어대)



▲ 용민식(영산대)



▲ 김유석(한양대)



▲ 서은총(계명대)



▲ 이대신(전주대)



▲ 박현린(광주대)



▲ 윤현석(광주여자대)



▲ 원형식(건국대 글로벌)

교수학습지원, 미래교육



▲좌장_강민호(동의대)



▲이민주(영산대)



▲박정순(경운대)



▲김진우(영남대)



▲최경식(목원대)



▲박소영(대구대)



▲박진서(가톨릭관동대)



▲이석민(성균관대)

미래교육



▲ 좌장 권경휘(영산대)



▲ 정세영(계명대)



▲ 장원정(대구가톨릭대)



▲ 김경선(포항공과대)



▲ 최미나(청주대)



▲ 박현경(한성대)



▲ 김호연(송원대)



▲ 강현주(호남대)

지산·학 연계 및 대학 간 공유·협력, 교육의 질 관리



▲ 좌장_장경수(부산가톨릭대)



▲ 성치경(동서대)



▲ 정은희(경남대)



▲ 정준원(남서울대)



▲ 이태희(한양대)



▲ 선상욱(동신대)



▲ 전연홍(동양대)



▲ 양채원(서울시립대)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학생 수기공모전 수상작 발표



▲ 진행_김종숙(인제대)



▲ 김나원(연세대)



▲ 허윤서(한국외국어대)



▲ 김건우(한양대)



▲ 김성규(가천대)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학생 수기공모전 수상작 발표



▲ 김수림(한림대)



▲ 박세건(가천대)



▲ 이서빈(한양대 ERICA)



▲ 김형남(포항공과대)



▲ 이윤지(한양대)



▲ 이유빈(덕성여자대)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학생 사례영상 경진대회



▲ WithU(위유) (동의대)



▲ 역사 좀 아일 (성균관대)



▲ 리프텐 (한국공학대)



▲ AI's on me(아이즈온미) (한양대)



▲ Wonder Girls (원광대)



▲ DAN짱 (단국대)



▲ 추비즘 (추계예술대)



▲ 부스터 9기 (한국외국어대)

폐회식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례영상 경진대회 시상식_대상



▲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학생 수기공모전 시상식_최우수상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례영상 경진대회 시상식_최우수상



▲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학생 수기공모전 시상식_우수상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례영상 경진대회 시상식_우수상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례영상 경진대회 시상식_장려상

폐회식



▲ 폐회사_이주열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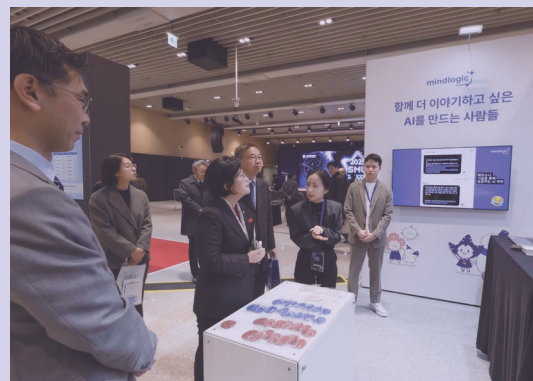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감사패 수여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NEWSLETTER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50834)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PRIME의생명공학관 106호
TEL. 055)320-3215 FAX. 055)320-3207 E-mail. uispc0624@gmail.com